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53回平昌郡議會

第 2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日 時 : 1997年 11月 26日(水) 11時00分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1. 郡政에關한質問

附議된 案件

- 1. 報告事項 _____ 1 面
- 2. 郡政에關한質問 _____ 2 面

(11時 00分 開議)

○ 議長 李相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문과 집행부

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報告事項

(11時 01分)

○ 事務課長 李京植 :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議長 李相蕪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郡政에關한質問

(11時02分)

○ 議長 李相蕪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사전 의원간 협의한 대로 군정에 대하여 오전에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고,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종영 부의장, 이경진 의원 유돈문 의원, 이수현 의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후에도 마무리를 하시지 않고 계속 발언시에는 부득이 발언을 중지하도록 마이크를 끄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의원이 제기하는 제반사항들은 향토 발전을 갈망하는 군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보다 충실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영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鍾永 議員 : 김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다른 열정으로 군정을 이끌어 오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수행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농업유형은 크게 고랭지 농업과 중산간 농업의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모두다 안정적인 농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랭지 농업은 화훼, 양파, 고랭지양채류 등 다양한 면에서 타 지역

과 다른 특이한 작목이 많아 농업소득 측면에서 발전적인 농업으로 볼 수 있으나 고랭지를 제외한 다른지역의 농업은 뚜렷이 장려할만한 작목도 없을뿐만 아니라 가격도 안정적이지 못해 매년 "농산물 팔아주기"를 펼쳐야 할만큼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팔아주기"로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시름을 덜어주는 것은 장려 할만한 일로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나, 매년 반복해서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값도 받지 못하여 농촌이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태양초고추 등과 같이 고유 브랜드화 하는 방안 등은 폭넓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따른 계획은 있는지? 또 있다면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농촌 전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과 계획은 어떤 것인지 추상적이기 보다는 실현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로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연말연시가 되면 슬그머니 하나 둘 오르기 시작한 물가가 해를 넘기면서 정착되고 결과로는 물가인상의 빌미가 되곤 하는데 사실상 매년 연말연시만 되면 거창하게 물가단속이라는 계획을 세워 물가안정을 위하여 요란만 떨뿐 지금까지 제대로 실천이 되지 못하고 있는바, 금년에는 법적근거에 따라 물가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매년 반복되지 않아도 시와 때를 맞추어 인상 또는 바가지 요금이 성행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 개방의 영향에 따른 외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방관하고 있는데 연말연시 물가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런 실질적인

단속이 정착되어야만 농가 소득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물가안정 대책과 바가지요금 단속 및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방안 등을 답변해 주시고 이의 성과에 대하여 추후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지켜 볼 것인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수많은 소득사업을 전개하여 지역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다른단체에 못지 않게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를 어느정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 노람뜰 사업처럼 즉흥적이고 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일련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추진상의 문제점과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집행부의 노력에 비해 기대했던 만큼 성공적이지는 못한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이러한 자치단체로서 추

진한 사업의 계획과 성과를 재정립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집행부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투자한 경영수익 사업의 투자대비 실적은 어떻게 거두고 있는지와 각종 개발사업, 지방세수증대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해서도 계획대비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李相薰 : 김종영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慶鎭 議員 : 존경하는 이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욱 군수를 비롯한 80여 공직자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더니 벌써 2대의회 임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결산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만감이 교차합니다. 사회경험이 부족했던 저 개인에게 지난 2년 6개월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었던 아주 소중한 시간들 이었으며 의회 의원

으로서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군의 현주소를 알 수 있었던 아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잠시 김용욱 군수 2년 6개월 임기동안에 우리군이 처해져 있는 현실을 본인 시각에서 보여진 대로 성과가 있었던 점과, 좀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 그리고 부족했거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몇가지 말씀드리고 그 대책과 방향을 잠시 짚어보고 본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과가 있었던 점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으로서 군자체 내부지침서를 만들어서 관련 공무원을 교육시켰고, 그 결과 지역경기 활성화에는 공직자가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크게 있었으며 부실공사와의 전쟁 선포로 성실시공의 분위기가 크게 조성되었으며, 모든 민원 행정을 행정편의에서 주민편의로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을 신축한 점, 감자, 고추 등 농산물 팔아주기 사업도 성

과를 올렸고, 특히 북한 수송선을 타는 평창감자는 그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된 점은 대표적으로 평가 할만하다고 하겠으며, 지혜롭게 대처하셔야 할 부분은 우리는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또한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군정을 하시면서 사적인 문제를 군정과 결부 시켜서 균형이 흐트러지는 처신을 하신적은 안계신지, 군수께서는 임기동안 크고 작은 여러가지 일을 추진해 오시면서 필요이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셨던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군정과 직접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헌신적인 노력을 하셨다고 자부하고 계십니다.

본의원 또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부분에서는 선거와 관련 지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시급하게 시정이 요구됩니다.

첫째, 임기중에 의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군정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시겠노라고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발표만 해놓고 실천하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 일부지만 몇군데 시군에서는 집행부에 도의원들의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항상 도의원들과 접촉해 가며 국도비 확보는 물론이고 정책사업 반영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의원들이 도단위 활동을 해 가는데 어떠한 후원과 협조를 하고 계신지 하루속히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개최되는 '98월드컵스키대회,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거군적으로 지원하고 2010년 동계올림픽을 지향하는 군민의 단합과 의지를 결집시키고자 동계 국제대회 평창군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계획안을 확정해 놓고 96년 5월 20일 시작해서 각계 직능단체 대표 56명을 선임했고, 동년 5월 30일 1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해서 준비위원장을 선임했고 동년 6월 26일 1차 실무위원회

를 개최해서 위원장에 평창군번영회장 임정규씨를 선출한 바 있습니다.

동계 국제대회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온 군민이 하나되어 일구어 내야할 현안 사업중에 현안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구성계획을 확정하지 1년 6개월이 흘러갔고 며칠전에는 IOC위원이 현지를 방문할 정도로 중요한 시점에까지 왔는데도 우리군내에서는 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계속 미루고 있는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또한 군전체의 큰일을 추진해야 하는 군수의 본연의 임무 보다는 특정인을 너무 의식하는 위험한 발상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군민 전체에 크나큰 누를 끼치고 있음은 물론이고 군수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아주 잘못된 일로서 군수 임기동안 공무원 징계권에 관한 사항은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서 특히 지난 7월 10일 김창길 과장의 부당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강원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현직 군수를 상대로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그 결과를 9월 18일 결정해서 최종 판결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상황에 대해서 또다시 알 가불가 하면서 지나온 과정을 재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공식적인 자리가 없었기에 이 자리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교훈으로 남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사유를 이유로 중징계 요구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징계 또는 불이익 처분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경우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으로

1997년 7월 10일 피소청인이 강원도인사위원회에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 요구 한 것에 대하여 1997년 8월 1일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불문 경고 처분한 것으로 보면 위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피소청인의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는 비례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며 또한 피소청인의 중징계로 징계의결 요구한 사항이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불문 경고로 의결되었다면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들였다는 것은 징계 양정 요구가 과중하였다고 피소청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중징계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징계사유로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요구 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년 7월 11일 소청인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참으로 잘못된 일이었으며 아울러 종교 단체와의 갈등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군의원, 군수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이 합심 단결해서 공직사회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건설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군정운영이 필요하며, 특히 너무 지나친 힘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정책 결정은 잡음이 따를수 밖에 없으며 각자의 전문가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군 정책 결정권자의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의원 역할 배가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청사내에 도의원 사무실을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용의는 있으신지요?

동계국제대회평창군추진협의회 운영

계획은 있는 것인지, 창립총회는 왜 안하는 것인지, 언제 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보광휘닉스파크 골프장 개장 6개월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잔디 관리를 위해 다량 살포 가능성이 있는 농약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평창군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자랑하는 군으로서 영동고속도로 4차선 공사가 한창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원주, 강릉간 철도신설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기본 설계에 착수해서 측량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창북부 4개지역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서 개발기대 심리가 부풀어 오르고 남부 4개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 개발 가속도가 그 어느때보다도 기대를 걸게 되는 군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의원은 물론이고 전 군민이 바라는 것은 환경정책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 개발과 보존이 균형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제점을 제시해 보면 보광 휘닉스파크 '94~'97년까지 토목공사와 관련해서 평창강이 심각하게 토사로 오염되면서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여러차례 환경문제로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별 뾰족한 대책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세월은 흘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왔습니다.

'98년 상반기부터 개장되는 376,000평의 골프장에 쏟아붓는 농약의 피해에서 어떻게 살아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은 실로 온몸이 오싹해 지는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서 잠시 농약살포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와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장측 이야기로는 고독성 농약은 쓰지 않는다고 끝까지 부인하지만 환경처가 전국골프장 46곳을 조사한 결과 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흡입했을때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8가지나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농약관리법 및 고시를 살펴보면 잔디에는 12가지 농약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골프장에서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약 92종의 농약을 법을 어기고 모두 쓰고 있었으며 그러한 현상은 매년 되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계보건기구가 발암물질 함유로 두통, 임신장애 등으로 사용을 엄격히 금지시켜온 켈탄, 디코폴, 다코닐 등이 검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골프장에서는 고독성 제초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잔디보호를 위해서 저독성 농약을 다량 고농도로 사용할 경우 고독성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환경처에서는 92년 골프장 조성시 침전지 설치 의무조항을 삭제해서 수질 보존 규제를 완화조치 했다는 것에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평창강의 죽음은 물론

이고 골프장 하류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체와 전체 주민의 생명은 일개 기업체에 맡겨 놓을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생각할 때 행정기관의 노력은 실로 크고도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준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에 맞추어 평창군 분뇨처리장도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분류해서 시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군에서는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물론이고 읍면마다 소각로를 설치해서 사용도 해 보았으나 결론적으로는 예산만 낭비했고 재투자 중복 투자로 댐질 처방에서 벗어나지 못해 왔었으나 최근 군단위 준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현대식 설비를 해서 위생적인 매립장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점은 평가됩니다.

평창군은 멀지않아 명실상부한 관광군으로 성장해 가면서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관광객의 숫자는 급속도로 증가될 것으

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단해 볼때 우리군의 인구 성질은 고정인구와 관광인구로 약 1대 1 비율로 되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92년 평창군 분뇨처리장을 30t 규모로 평창읍 노론리에 시설해서 채 5년도 사용하지 못하고 용량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각종 관광지 개발로 주택 및 대형 관광숙박시설물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분뇨처리장 20t규모 증설계획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경비 70%를 차지하는 국비지원이 어려운 상태이고 설상 사업비가 확보 되어서 공사를 추진한다 해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 용량은 포화상태에 달하고 그때마다 증설이란 이름으로 확장 계획은 계속되고 고가의 장비구입 시설 투자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직까지 분뇨처리장 증설과 관련해서는 설계용역도 발주하기 이전이고 물론 예산도 일부 미확보 상태이다.

차제에 쓰레기 매립장 준광역화와 보조
를 맞추고 항구적인 시설을 갖추기 위해
서 단기적이고 실효성 없는 증설계획을
백지화 하고 현재 시설된 용량으로 남부
4개 지역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북부 4개지역이 사용할 수 있는 현대식
규모의 신규시설 분리 설치가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방류수 수질검사 최근 1년치를
기준과 방류된 수치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오염방지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부는 국토개발 과정에서 지
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국토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개발
권역과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개발
촉진지구의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94년
9월에 시행령을 선포하고 이제 3년째 시
행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서 개발촉진지
구는 UR체결 이후 농어촌지역과 중소도
시의 경쟁력을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
한 개발방식의 필요와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스스로가 지역개발사업에 적극 나서

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
로서 개발촉진지구를 자치단체의 낙후성
정도,입지 및 향후의 지역개발전략 등을
종합하여 3개 유형으로 구분해서 하는
개발방식으로서 우리군은 낙후지역형 개
발방식에 포함된다.

법에 따라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되면 크
게 행정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및 수
익성 제고, 사업권 부여 등의 각종 지원
수단이 있다.

행정지원으로서는 공공시설 국공유지 점
용허가, 토지나 시설의 매입업무대행,
주민이주 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대행 등 개발지구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
으면 국토이용관리법, 문화재보호법, 산
림법 등 개별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의
제 처리 해줌으로 해서 개발사업에 소요
되는 물적, 간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금융지원으로서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
으며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특별회계에 의
한 자금융자와 개발부담금의 감면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지정 지구에 대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민간자본 참여를 통한 사업의 실행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주변토지 개발권을 부여하고 조세감면 규제법, 지방세법 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지구지정 면적은 시도별 총 면적의 1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강원도는 총 면적중 10%인 1,689.7km²을 건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 비율에 따라 우리군은 낙후형 지역으로 지정되어 우리군의 배정은 120km² 정도이다.

문제는 비율대로 100% 지정 받기 위해서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지정 절차를 잠시 살펴보면 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요청을 하게 되고 그다음 장관은 국토건설종합 계획 심의를 거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이때 사업의 지역적 중

복성, 실현가능성, 경제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정면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다. 만의 하나 지정요구한 면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군으로서는 적지 않은 손실이 있을 수 있게 되고 개발욕구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가 발생된다.

특히 군수께서 의지를 보이시고 계신 삼방산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촉진지구에 포함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또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요구한 지구지정 남부 4개지구 면적 120km²의 전체면적 지정은 확보될 수 있는지 답변하시고 개발촉진지구 개발전담 팀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발주되는 사업비 5천만원 이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중 미계약, 미착공 미구입, 미설계 등으로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은 몇건이나 있으며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영안실 운영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끝으로 평창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李相薰 : 이경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0分 停會)

(11時40分 續開)

○ 議長 李相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돈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燾文 議員 : 유돈문 의원입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이해서 2대 의회의 마지막 군정질문의 기회인 만큼 집행부에서 좀더 진지하고 솔직하면서도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촉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습니다.

첫째, 평창강 오염문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땅 살기좋은 평창가꾸기 구호아래 600여 공무원이 근무하는 평창군 행정의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평창강이 흐르는 지역의 주민들은 허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공사장 인·허가를 해주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어야 하는데도 군수님의 공사장 확인마다 부실공사 지적은 물론이요, 공사장마다 토사유출 방지도 없이 마구잡이로 공사를 하여 맑고 깨끗한 평창강이 비만 오면 흑탕물로 오염되어 평창읍민들의 생활에 불편은 물론이요 읍민의 건강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데도 감독 공무원은 안일하게도 인원부족 한탄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의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책임이 전무한 실정이며 상리다리 아래 지역 강물이 새벽 일찍은 생활폐수와 각종산업시설 폐수로 물거품이 생겨

오염이 발생 하는데도 여기에 대책은 없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과 TV에서도 평창강 오염에 대하여 강력히 지적을 하는데도 책임에 전혀 무관심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평창강 상류에 흙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노람뜰 시설 운영 타당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지역개발과가 신설되면서 첫번째 시도한 사업으로 오토캠프장을 시설 운영한 결과 과연 평창을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도와 평창읍민에 대한 실질 혜택이 과연 얼마나 호응을 받고 있는지와 또 운영실적은 여름 휴가철에 얼마나 이용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비만오면 평창강물이 흙탕물로 오염이 되어 평창강의 보호 어족 쏘가리와 어름치가 멸종위기에 있고 평창읍민의 생활불편이 많은데 대하여 언론이나 평창강살리기추진위원회에서도 집행부 감독 소홀에 대하여 누차 촉구 하였으나 여기에 대책은 무시하고

2억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오토캠프장 시설 운영한 결과 얼마나 평창읍민들의 호응이 있었는지에 의문입니다. 미탄면 수하계곡은 전혀 한푼도 투자없이 마을단위 휴양지로 마을에서 여름휴가철에 운영한 결과 청소비로 600여만원이나 징수했습니다.

또한 전에는 오토캠프장을 시설하지 않았을때는 피서객이 평창강 주변 전체 어디서나 야영을 자유롭게 하였으나 이번 오토캠프장 설치후 집행부에서 오토캠프장 이용목적으로 많은 공무원이 업무를 전폐하고 단속을 하여 피서객을 유치는 커녕 오히려 평창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여 타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평창읍 상인들과 유흥업소에 불황을 초래 상 경기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고 평창 유흥협회와 번영회로부터 집행부에 항의가 있었는 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근 영월군과 정선군에서는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받아 다시 찾아

온다는 약속까지 하고 가는 사례가 많은데 본군에서는 안내소 운영은 커녕 오히려 나쁜인상을 주어 다시는 못올 곳이라고 돌아가는 피서객이 상당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고도 읍민들에게 도움을 준 공사를 하였다고 봅니까?

또 여기에다 이번 2회 추경에서 4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여름에도 피서객이 없어서 낚시터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낚시꾼들이 떡밥을 주면 그 물이 어떻게 오염되겠습니까? 맑은물이 오염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겨우 낚시터로 운영하자는 계획입니까? 집행부에서는 더이상 개입치 말고 마을단위 휴양지로 지정하고 차후에는 오토캠프장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공무원의 단속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실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게 공직자 근무에 차질이 없기를 촉구드리며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

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95년부터 국토 균등발전 계획 아래 낙후된 지역을 개발촉진지구 지정이란 법을 정해서 각 시도로 하달 도에서는 각군별로 개발 타당성을 조사하여 개발 계획서를 수립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지역에 레저산업과 도로확장 및 기반시설을 국비 지원으로 받아 낙후된 남부 4개면이 균등 발전을 가져오게 하여야 하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군민을 위한 행정을 외면하고 안일한 판단으로 본군 개발촉진지구 계획 면적을 95년도에 폐광지 미탄면을 중심으로 해서 평창읍 일부 지역 노론, 고길리로 한정 159km²만 촉진지구로 선정 추진하므로 인근 영월군 보다는 현저하게 적게 요구하여 본군이 시작부터 집행부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미비로 평창군에 개발면적이 턱없이 적어지게 되었다는데 처음부터 폐광지역 특별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낙후된 미탄면을 중심으로 평창읍 일부만 촉진지구로 지정 계획서를 추진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인근 영월군에서

는 95년도 4대선거가 끝난 후 민선군수 취임과 동시 계획을 수립해서 96년도에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97년부터 지정된 곳에 연차적으로 5,000억원이란 예산이 투자되게 되었다고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귀향보고시 주민에게 밝혔는데 본군에는 몇차례 계획서를 4개면에 추진하라고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즉시 이행을 하지 않아 늦어졌다고 국비예산을 책임질 국회의원이 주민에게 설명하였는데 어떻게 영월군 공직자와 평창군 공직자가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는데 차이점이 많은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지적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과의 불화 때문에 애꿎은 군민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집행부에서는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번째, 미탄지역 동굴탐사 용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월댐 건설로 인한 백룡동굴 보존을 위하여 본군에서 어려운 예산에도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동굴을 모두 조사할 해서 개발 가능한 곳을 정밀 조사하기 위하여 8월달에 실시 하다가 미탄 샘내 상수원인 동굴 물속에서 탐사원 의사로 인한 사고로 탐사가 중단 되었는데 대하여 대책을 밝혀 주시고 탐사시 상수원 동굴속은 경고문과 주의사항이 부착되어 있는 곳인데 이곳에 탐사하도록 승락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 물속에서 탐사원이 의사를 하였기 때문에 상수도물로 사용 불가함으로 30여 가구가 지금까지 식수를 길러다 먹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들은 상수도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면사무소에 건의한 상태인데 집행부 계획을 밝혀 주시고 금지 구역에 탐사를 하게 한 책임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굴학회 우경식 박사는 집행부의 승락을 득하여 탐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탐사원이 사고를 당하니 전혀 승락을 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애꿎은 주민만 식수난에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책임져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

을 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월댐 수몰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월댐이 98년도부터 착공하여 2002년 완공 목표로 진행중이므로 본군 미탄면을 수자원 공사에서 공청회때는 미탄 4개리만 수몰지역이라고 밝혔는데 9월 22일 영월댐 건설 예정지 지정 고시때는 6개리라고 확정하였는데 미탄 6개리라면 백운리와 창리까지 6개리인데 집행부에서는 미탄 주민에게 어디까지 수몰지역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영월군에서는 10월 9일부터 수몰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월댐 건설 행정지원단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집단이주 정착대책과 기록 보존을 위하여 지형과 수계, 지질, 생태계와 문화유적지를 자체 조사하고 수몰지에 모래, 자갈 채취와 관상수 및 수석을 수집 매각해서 6억원의 군수입을 올린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도 수몰지 마하리 강변 속칭 황새여울 근처에는 양질의 모래, 자갈이

많이 쌓여 있고 관상수와 수석도 많은데 집행부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포기상태인지 요즘 평창군 레미콘업자들이 골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매각처분을 해서 군수입을 득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실시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영월에서는 도로도 없는데도 미탄지역 도로를 이용해 수송을 하는 열성 있는 것을 볼때 참으로 본군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수위때 미탄 수몰지 위치 창리 40번지 토지와 45번지 담은 창2리 속칭 나무등우리 라는 다리 근처인데 그렇다면 창2리 나무등우리는 고립지역으로 당연히 토지보상 지역이라야 되는데 단 한집 가옥만 이주되고 6가구는 이주대상에서도 제외된 점은 불균형 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해결 해 줄 책임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드리며 또한 이번에 수몰지역을 얼마나 집행부에서 무책임 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300여년이 나 되는 잣나무는 수몰지인 기화리 상징이며 부락의 평온을 기원한다 하여 주민들이 몇백년을 위하는 보호 수목을 벌채꾼이 마구잡이로 도벌을 해도 감독 관청은 적발도 하지 않고 방치하니 주민들이 너무 억울해서 고발을 하니 할수 없이 적발을 하니 이런 민선자치단체 행정을 군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李相薰 : 유돈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議員 : 이제 평창군의회 제2대 의원의 임기도 얼마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2년 6개월여의 의정활동

동을 돌이켜 보며 가슴 뿌듯한 보람과 아울러 허전하고 쓸쓸한 만감이 교차되는 심란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이번 정기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게 되는 현 시점에서 지난날을 돌이켜 볼때 어떤 커다란 업적을 남기기 보다는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조그만 보탬이라도 되지 않았나 하는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지방의원이라는 직책의 업무한계를 동시에 실감하면서 진정한 주민자치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시대의 역할을 분담했던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2대 의원으로서의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4차례에 걸쳐서 총 40여개 부분의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부분도 소수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질문에 대한 답변이 형식에 치우치고 책임감 없는 임기응변식 내지는 소신없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은 이번 회기에 우리 모두 다시한번 각성하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고 계획성 있는 알찬
답변이 제기되기를 다시한번 기대 하던
서 먼저 조직개편 후 1년간의 성과에 대
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 7월 민선군수가 취임하고 보다
발전적이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군정
수행을 위하여 96년 7월 우리 평창군도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기획실을 기획감사
실로,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통합하여
복지과로 하고 민원봉사실, 지역개발과,
관광문화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직의
틀을 재편성하여 군정을 추진해 왔습니
다. 그 결과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
만 부작용 또한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지역개발과는 타부
서와의 업무 중복으로 인하여 부담감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
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과 지역개발과는 기획기
능이 중복되며 건설과, 도시과와는 사업
진행기능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의 중복은 결국 행정의 낭비
를 초래했고 업무의 혼란만을 가중시키
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손쉬운 일은
서로 하려고 하고 어렵고 귀찮은 일은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 하고 미루려고 하
는 행정의 누수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한가지 사업을 놓고 입안한 부서와
추진하는 부서가 다름으로 인해서 빚어
지는 부서간의 갈등과 행정의 누수 현상
으로 인하여 사업현장은 사전에 충분한
설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중에
수시로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등 행정과
재원의 낭비가 많았다는 것이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지적
할 수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또한 실질적으로 민원업무
를 총괄해야 하지만 지적, 상공, 복지
부분은 사무실만 갈을뿐 민원봉사실장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계와 병무계의 업무만을 맡아보고
있어 기구를 강화하던가 재조정이 요구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
니다.

자칫 잘못하면 소홀하게 생각될 수 있는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어루만져 주고 있
는 사회보장 업무는 사회가 선진화 될
수록 주민의 요구가 다양화 되기 때문에
업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
분입니다.

여기에 여성복지와 위생업무까지 가중되
어 기능조정이 불가피 하지만 그대로 방
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상황
에 놓여 있고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세
심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회보장 업무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관행으로 치우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을 시행할 때 부터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자치제 하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자치재정권이라고 말하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치재정권의 모체인
세입징수를 담당하는 독립된 부서가 없
다는 것은 자치재정권의 중요성을 간과
하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른 재무과의 업무과중 또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농촌지도소 조직 역시 97년 1월 1일자로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었
는데 농촌지도소 조직은 농정과와 농협
기능이 중복된 부분이 많아 조정이 절실
히 요구되었으나 중앙의 조직이므로 그
동안 개편이 불가능 하였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 만큼 향후 개선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
행부의 계획과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건축중인 평창문화예술회관, 대화
문화체육관, 그리고 용평 노인복지회관
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시설을 관리할 인
력이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
니다. 이제 우리는 평창군도 이러한
시설물을 관리할 독립된 부서가 필요하
다고 사료되는데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집행부의 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시점에
서 볼 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후 현재까지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큰 성과는 무엇인지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군정 책임자인 군수께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비례하여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이 날로 증가하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인류가 생존하는 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제이므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생활 그 자체이므로 이 문제는 결코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고 군민 전체가 참여하여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봉착해 있으며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향후 5년간 우리 평창군의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단일사업중에 100억원이 넘는 사업이 열한개나 되며 총투자액은 2,000억원이 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군도개설 및 확포장 사업에 416억원, 발 기반정비사업에 333억원, 농촌도로개설사업에 220억원, 쓰레기매립장시설 5개소에 214억원, 하수처리장 3개소에 150억원 등 막대한 재원이 투자 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214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소형 폐기물 소각시설 4개소에 20억을 포함하면 쓰레기 처리 시설에 총 234억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처리방식 또한 전적으로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 기간동안 주민 1인당 50만원씩 부담을 해야함은 물론 매립장이 넘치면 또 다른

매립장을 조성해야 하며 중국에 가서는 우리 후손들은 쓰레기더미 위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쓰레기 문제만은 집단 이기주의 라는 감정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보다 철저하게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광역화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지도 않고 읍면별로 매립장과 소형 소각로를 설치한다는 것 무사안일 위주의 책임감 없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정의 부재현상이며 차라리 자기집 쓰레기는 각자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방법이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평창군의 쓰레기 처리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 시켜서라도 매립장 시설을 광역화 해야하고 대형 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을 기본처리 방식으로 하고 소각후 잔여 처리물을 매립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개년 투자계획중에 군도 개설 확포장사업, 발기반정비사업, 농촌도로개설사업 등에 투자되는 1,000억원의 사업을 광역쓰레기 소각 및 매립장이 설치되는 지역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던 쓰레기처리 문제는 기본매립소량 소각 원칙에서 기본소각 소량 매립 원칙으로 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한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서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 매립지를 축소하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계획과 군도 4호선 중에서 개수리와 대화3리를 연결하는 구간의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승인 요청에 대해서

는 이미 본 의원이 제49회 임시회의에서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개발촉진 지구의 지정 목적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94년도에 제정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정부의 투자를 집중 시키면서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개발속도를 가속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강원도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검토중에 있으며 확정되기까지는 '97년말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정 목적이 그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되는바 인근 영월군 보다 지정승인이 늦는 이유는 무엇인지, '97년말이 다 되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진척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4호선 역시 본 의원이 네번째로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2000년도에 착공을 할 계획이라는 막연한 답변으로는 본 의원의 필요 조건을

충분히 수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확실한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의 운영 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도비 1억과 군비 1억 5,000, 총 2억 5,000만원의 보조금으로 출발한 이 사업은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확실한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았고 현지조사와 사업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자부담 능력 또는 부실했고 특정 단체의 명칭만 빌린 소수 특정인에 대한 특혜사업이라는 의혹이 많았던 사업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 사업에 대한 관심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동안의 운영실태와 보조금의 집행내역을 한치의 오차와 거짓 없이 밝히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했던 전세금의 채권확보 내용과 그 결과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농협과의 협력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노력으로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이루어진 협력사업은 그 취지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하고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의 계획성 없는 사업비 집행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상당부분 희석되는 안타까움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이중 삼중으로 중복된 지원을 받는 농가나 실질적인 농민과는 거리가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지 못하고 무작정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모두에게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인해서 순수한 농민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격감되고 따라서 사업의 효과마저 그 뜻이 반감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업비의 추가확보 계획은 있는지, 또한 그것이 가능한지, 사업비 집행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9년 동계아시안게임의 국

도비 보조금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 평창군 당초예산을 생각하면 한마디로 걱정이 앞섭니다.

우선은 도암, 진부, 용평, 봉평의 상수도 와 각읍면의 쓰레기장 조성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99동계아시안게임 준비사업에 투자되는 군비부담이 59억원이나 됩니다. 물론 우리군에서 열리는 대회니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을 감안하면 부담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비 부담액이 52억원인 반면에 도비 부담은 16억 7,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선 재원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균형적 발전을 바라고 있는 남부지방 주민들의 지역정서를 감안하고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과 대회 준비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주체성 있는 각종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진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동계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군비의 부담율이 너무 과중하고 그로인해 빚어지는 일부지역의 예산집중 현상과 기타 지역의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소외현상은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집행부의 의도와는 달리 국도비의 지원에 따른 맹목적식의 군비부담을 집행하는 계획성 없고 자주성 없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도비의 지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재원은 줄어 들고 기채는 늘어나고 있는 우리 평창군의 재정상태를 심각하게 다시한번 평가해 볼때 본의원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와 무엇보다도 국도비의 부담을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의 국도비 확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현명한 판

단과 만족할만한 답변이 제시 되기를 기대하면서 2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議長 李相薰 : 이수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5分 停會)

(14時00分 續開)

○ 議長 李相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은 자제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姜慶錫 : 기획감사실장 강경석입니다.

군정질문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청 내에 도의원 사무실 설치 용의가 있는지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효율적 군정 수행을 위해서는 이경진 의원께서 질문하신대로 우리군 지역 출신 도의원 분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7년 11월 현재 강원도에 18개시군 자치단체중 5개 시군만 소회의실 이라던가 또 민주평통정책자문회의 사무실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곳이 있었으나 의원님들이 현재까지 설치는 되어 있으나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향후 도의원님들께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사무실 사용

을 꼭 하시겠다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사무실 관련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안실 부서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안실 신축을 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영안실 신축은 5년전부터 영안실이 없어 사망에 이른 환자를 인근 시 지역으로 이송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아파트 증가에 따른 장례식장 필요성이 증대되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비보조 1억원을 받아 함께 공사비 3억원으로 지상2층 380㎡에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연말이면 준공이 예상이 됩니다.

영안실부서 운영은 복지과와 의료원, 제삼자에게 부탁하는 방향 등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를 고려하여 다소 지방공사에 의료원이 없는 시군으로서 처음 우리군에 영안실이 신축이 됨으로 인해서 부서지정에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안실 시설 관리라던가 시체 영용품판매, 사용료 수납처리, 인력충원

등 여러가지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업무의 비중이나 또 합리적인 운영 방식을 저희가 적극 모색해서 인력 지원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영안실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해서 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99동계아시안게임 국도비 보조금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동계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98년 당초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국비 52억원, 도비 16억 7,500만원, 군비 59억 3,400만원, 총 128억 900만원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과중한 군비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인해 시급한 현안사업의 마무리가 늦추어져야 하는 등 재정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가용재원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나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를 또한 차질없이 추

진 하지 않을 수 없어 소요사업비를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9년 동계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강원도에서 97년 11월 현재까지 확정 내시한 사업비는 16억 7,500만원중에 10억 2,500만원으로서 도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 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군비 부담을 역시 조정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어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반영할때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는 이미 99 동계아시안게임 사업중에 소요사업비를 최소한으로 축소 시행코자 횡계교와 송천교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당초 사업비가 142억원으로 계획되고 98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52억원, 군비 39억원으로 내시되었으나 소요사업비를 125억원으로 축소함에 따라 군비부담금 17억원을 줄여 부담하였고, 도로 안내판정비 사업비는 당초 1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3,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또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 및 도의원, 관련공무원 등과 수사 긴밀한 연락과 자료 제공을 통해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중앙부처와 강원도 실무부서를 방문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강원도의 지원계획은 극히 미흡하며 계획된 지원금액조차 확보되지 않은 실정으로서 98년도까지 도비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나 도비 지원이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의 축소 시행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련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계획외의 국도비 추가자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李相薰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慶鎭 議員 : 이경진 의원입니다. 영안실 운영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12월달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그다음에는 영안실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먼저 참고로 도내 영안실 운영 19개 시군중에 5개 시군에서는 의료원에서 하는 그런 실정으로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조례 제정 하기 이전에 관리부서에서 어느부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하셔야 될것 같고 조례를 제정 하실려면 내년도 임시회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상태로 봤을때 임시회를 할 수 있는 시기가 4월달 내지 5월달, 그럼 동절기에 사망 사고가 많이 예측이 되는데 4-5개월 동안 관리의 허점, 이런 부분이 예견이 됩니다.

조례제정 하기 이전에 부서간 협조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4-5개월간의 공백은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될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姜慶錫 : 네. 조례제정은 긴박합니다만 이번 회기내에 제정하도록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만약 이번 회기내에 불가피하면 우선 운영부서를 우선 지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李慶鎭 議員 : 가능하면 이번 정기회내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게끔 하시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姜慶錫 : 네.

○ 議長 李相蕪 : 이수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議員 : 이수현 의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99년 동계아시안게임을 위해서는 국도비의 확보 노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98년까지 도비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나 도비 지원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의 축소 시행이 불가피 하

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 특단의, 구체적인, 특단의 노력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국도비가 충분히 지원이 안되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축소시행을 분명히 계획된 대로 하지 못하고 축소시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姜慶錫 : 네. 이번에도 예산 내시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우선 송천 정비사업이 저희가 도비 6억원과 군비 6억 3,000만원을 보태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98년도 평창군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1억 5,000만원밖에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50% 부담하는 범위내에서 한다면 도비보조 1억 5,000만원에 상당한 것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우리가 지역의 균형발전에 쓰일 수 있는 사업비에 충당할까 그래서 수정예산때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황계 간판정비 등 이런 사업비가
지금 1억원밖에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부담하는 비율에
의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조치 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국비는 현재 내시되어 있는 저희
가 5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특별
한 조치로 국회의원 이라던가 그외 도에
예산부서 라던가 다시 얘기를 해서 특별
교부세라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된다면 그대로 집행을 하고 만약에 그것
이 여의치 못할때는 사업의 중요성에 따
라서 중요한 사업부터 우선 해나가고
나중에 국비가 부담이 될 때 하도록 그
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議長 李相薰 :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禹康鎬 議員 : 질문 있습니다.

○ 議長 李相薰 : 우강호 의원 질문하시
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평창군 정책협의회를 구성 하겠다고 가

칭 이렇게 하셨는데 실지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포함해서 군수님까지 해
서 의정협의회 문제를 상당히 군수께서
도 말씀하셨는데 의정협의회 하고 정책
협의회 하고 차이를 어디에다 두고 이렇
게 구성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姜慶錫 : 지난 10월달
에 군수님이 기자와의 간담회 석상에서
그때 군정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 국회
의원과 도의원과 그다음 군의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기탄없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협의를 하는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난번
임사회, 그다음 국회의원이 시간이 안나
고 또 국회의원이 시간이 나면 도의원께서
도의 의사일정 때문에 시간이 안나고
해서 금년에 저희가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책협의회와 의정협의회라 해서
의정협의회 명칭은 군 의회나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명칭 같고, 다만 군수는 사
업을 집행하는 의미에서 정책적으로 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명칭
을 개선 해 볼까 해서 그렇게 구상을 했

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의정협의회는 의회에
예속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정책
협의회로 구성하신다고, 취지는 어쨌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타 시군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군의원간의 시간
차이를 어떻게 줄여서 의정협의회를 운
영해서 군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잘 갈수 있도록 시장, 군수가 노력을
하는데 우리 평창군은 그것이 한번도 될
수 없었던 차이, 이유가 아마 석연찮은
이유중에 하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군수께 보고를 잘 드려야 될것 같아요.
글쎄 얼마큼 중요한 회의가 서울에 있는
지는 모르지만 의회에 대한 개념이 절대
적으로 정립이 안되어 있는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하는 행사
나 의회에서 하는 전반적인 업무, 이런
것에 대해서 군수께서 도대체 관심이 없
는 것 같아요. 정책협의회고 의정협의
회고 그런 상태에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우리 평창군이 제대

로 가겠습니까?

가라고 백날을 굳혀도 소귀에 경읽기인
데, 잘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 金樂雲 議員 : 김낙운 의원입니다.
의정협의회던 정책협의회던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 의회때부터 의회
와 집행부에 군수를 비롯한 군청 실과장
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 수차례 정례적인 모임을 갖자고 의회
에서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좋은 의견으로
받아 들였고 꼭 시행하겠다 라고 그때
기획부서에 계시는 실장님들이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런 여러차례의
의회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모임을 갖지 않았습디다.

저는 내일 군정질문에 군수께서 어떤 개
인 특정인들과의 협의회를 중심으로 운
영하고 있는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만,
군의원이던, 도의원이던 번영회 회원이
던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과의 정례적
인 모임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머

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임의 자리가 제가 알기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좋은 자리도 있고 좋은 협의회도 구성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임을 자꾸 회피하고 주위에서 나오는 전위대라고 하는 이런 오해 소지가 따르는 특정인들과의 모임은 자주 열어가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여러차례 얘기하는 모임에 대해서 군수한테 건의를 하신적이 있는지, 건의를 했는데 군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 企劃監査室長 姜慶錫 : 군수한테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모임을 갖도록 하는 것도 실무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 불찰입니다.

○ 金樂雲 議員 : 건의조차 안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姜慶錫 : 건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 議長 李相薰 :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

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趙圭植 : 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김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가 되면서 집행부에서 수행한 자치역량제고에 중점 추진한 사업중 지방세수증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우리군에서는 지방세수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단체장이 취임한 이후 재정확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96년 7월 세수증대를 전담하도록 3명의 정원으로 세무조사계를 신설하여 44개 법인을 조사한 결과 비업무용토지를 비롯하여 과소신고 및 누락분 세액 6억 839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6개의 법인을 조사하여 비업무용 토지취득세 8억 8,440만 3천원, 과소신고 및 누락분의 취득세 등 6개 세목에 1억 6,846만 7천원을 합하여 10억 5,280만 7천원을 추징하는 등 지금까지 법

인세무조사 중 총 16억 6,126만원의 세수를 증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및 자주세원 확보를 위하여 관내 대기업체의 임직원들의 주민등록 전입을 추진하여 96년말 253명의 인구증가 효과 및 지방교부세 2,987만 4천원, 자동차교부세 355만 2천원, 자동차세 6,831만원이 증가 추정 등 1억 173만 6천원의 세원증대 효과를 가져왔으며 금년에도 계속해서 주민등록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까지 273건의 별장을 관리하여 재산세 1억 980만 4천원, 종토세 2,745만 5천원 등 1억 3,725만 9천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조사인력 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하였던 외지인 소유주택 547세대에 대한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95세대의 별장추정 대상물에 대하여 금년 10월에 50세대에 대해서 4억 7,030만 3천원을 부과예고 하였으며 잔여 145세대는 서류를 보완중이며 추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고 잔여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여 이자수입이 95년 6억 2,960만 9천원, 96년도에 2억 6,666만 1천원, 금년에는 지금까지 28억 3,746만 5천원이나 연말까지는 약 30억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군 97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약 31%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군 발전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관외거주자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시작한 내고향 담배 애용하기 운동은 지금까지 975명의 고객을 확보해서 5회에 걸쳐 12,697보루의 담배를 판매하여 5,840만 6천원의 담배소비세를 증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세무공무원 모두는 창의적인 노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李相薰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鍾永 議員 : 김종영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세액을 부과를 해서 현재 고질채권으로 남아있는 채권은 없습니까?

○ 財務課長 趙圭植 : 지금 고액채납자는 이런 세목에서만 말씀을 드릴수 없어요. 전체 부분에서 고액 채납자가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액 채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압류 라던가 경매 의뢰중에 있습니다.

○ 金鍾永 議員 : 이상입니다.

○ 議長 李相薰 :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開發課長 申大松 : 지역개발과장 신대송입니다.

김종영 의원님과 이경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영 의원께서 답변하신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집행부서에서 수행한 자치역량제고에 중점 추진한 사업중에서 경영수익사업 개발 강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사실상 그간 여러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라던가, 예산의 부족이라던가, 사업선정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성과는 지금현재 없는 상태이고 주로 하천골재 라던가 주차장 사업 등으로 해서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평창군에서도 금년도에 진부 오대천 고수부지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되어 있는 골재 73,954m³을 매각해서 3억 5,0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총 평창군 전체 하천골재 매각 5억 6,7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재무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린 출향인사를 통한 담배 애용하기 이익금이라던가 그다음 술잎혹파리 피해목벌채 1,670만원 등 세수증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앞에서 답변한 사업을 비롯하여 황계지구 에 있는 명태덕장 택지개발사업 분양 이익금을 계획하고 있고 미탄 수몰지구 자연석 하고 조경목이 지난번에 조사를 해본 결과 자연석이 3,000개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안, 그다음 공사 및

물품구입 구매시 입찰참가비를 건당 1만원정도를 징수한다는 문제는 지난번 대법원에서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평창군에서도 내년도에 새롭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경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중에서 아직까지 계약이 안되었다던가 착공이 안된것, 그다음 설계가 안된것, 이런것에 대해서 건수와 사유를 물으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97년도에 발주중인 5,000만원 이상 사업은 총 160건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75건이 현재까지 완공이 되었고 66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미발주된 사업은 총 19건이 설계중이거나 상급기관 등에 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 보면 강원도의 인가 및 승인신청 사업이 8건이 있고, 설계용역중에 있는 사업이 5건, 용지보상중에 있는 사업이 1건, 기타 공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5건입니다.

상기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말 또는 불가피할 경우에는 내년초에 착공할 계획에 있으며 추진사항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9건의 사업을 보고를 드리면 상세한 내용은 해당되는 행정사무감사때에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신축공사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재무과에 발주의뢰중에 있고 명시이월 후에 내년도에 4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설묘지조성공사는 계속사업으로서 추가분에 대한 입찰예정일이 12월 3일입니다. 입찰이 끝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진부보건지소 신축공사는 현재 설계가 다 되어서 건축협의중에 있고 이것도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가산 이효석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설계용역을 10월달에 해가지고 11월 17일날 납품되었습니다만, 현재 설계내

역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진부도서관건립공사는 11월 29일날 설계가 납품이 되기 때문에 납품이 된 후에 검토를 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림쓰레기매립장 공사는 당초에 운교3리로 계획을 했다가 토지주의 반대로 인해서 운교1리로 현재 사업지를 변경을 해서 주민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징구가 끝난 다음에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방림쓰레기 소각시설은 96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다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사업비가 반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부쓰레기매립장으로 이전해서 사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평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 설치공사는 현재 설계보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보완 후에 12월중에 발주 할 계획입니다 대화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는 설계가 납품이 되어서 강원도에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승인 후에 입찰을 해서 발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진부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는 이것도 사용 승락이 아직 다 안되었기 때문에 또 설계가 10월 22일날 계약을 해서 내년도 3월 2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될 사업입니다.

다음 진부 진입로 확장공사는 설계비는 납품 받았습지만, 당초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나머지 구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소하천정비 사업은 3개지구인데 이것도 12월 25일날 용역된 설계가 납품 예정이기 때문에 납품이 된 후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도암문화마을 조성공사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3월초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발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97년도 발기반정비사업은 4개지구에 되어 있는데 2개지구는 현재 도에

서 승인이 되었고 2개지구에 대해서는 98년도 예산확보 후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입찰할까 합니다.

신리~마평 군도포장공사는 접속부분에 대한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12월달에 발주예정에 있고 나머지 터널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달에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李相薰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慶鎭 議員 : 지금 과장님이 제출하신 미발주 사업이 건수로는 16건인데 어떤 사업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고 어떤사업은 사업비가 언제 확보되는지 이런 사항들이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감사할때 참고로 볼 수 있게끔 16건에 대해서 예산확보시기, 설계시기, 납품시기, 착공시기, 그것을 기간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開發課長 申大松 : 발기반정비사

업이 1건으로 되어 있는데 건수로 따지면 4건입니다. 그것이 포함되면 19건이 됩니다.

○ 李慶鎭 議員 : 알고 싶은것은 예산확보에서 설계까지 공백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다던가 이런 부분을 체크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開發課長 申大松 :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慶鎭 議員 : 이상입니다.

○ 議長 李相薰 :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觀光文化課長 金永錫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입니다.

군정질문사항중 이경진 의원님, 유돈문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계 국제대회 평창군추진협의회 운영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도암면 지역에서는 98년도 월드컵스키대회와 99년도 강원동계아시아 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스포츠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제대회는 우리군을 세계에 널리 알려 군정발전을 앞당기고 군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거군적으로 이 대회를 지원하고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가칭 "동계국제대회 평창군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발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창립을 위한 그동안의 경과에 대하여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말경 각계 직능 대표자 56명을 준비위원으로 선임하여 준비위원회를 구

성하고 그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어 본 협의회 창립준비에 착수 하였습니다.

96년 6월 20일 제1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실무위원회의 2회, 준비위원회 2회를 각각 개최하여 창립과 운영,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관안 작성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한편 준비위원회에서는 본 협의회 회원 영입작업을 벌여 각 읍,면 번영회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위주로 424명으로부터 회원가입 승낙서를 징구한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1년여 동안의 준비작업을 통하여 창립준비는 어느정도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아직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립총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정중 가장 큰 문제는 운영경비 지원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400여명을 회원으로 운영하는 범 군민적인 조직체가 운영예산 한푼없이 발족한다는 것은 차라리 구성하지 아니 하는 것만도 못하다는 판단하에 96년도와 97년도에 걸쳐 몇차례 예산요구를 한바 있습

니다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운영예산지원 문제가 해결된다면 창립준비 보완작업을 마무리하여 본 협의회를 빠른 시일내에 발족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경진 의원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보광 휘닉스파크 98년 상반기 개장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살포가 예상되는 잔디용 농약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도지사가 매분기마다 농약의 구입량 및 사용량을 조사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약잔류량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약사용 실태검사는 통상 해당 업체에서 분기 1회 이상 보고하는 농약의 사용량, 사용품목을 기초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95년 7월 20일 국내에 고시된 잔디사용 농약현황을 살펴보면 살균제 34개품목, 살충제 10개품목, 제초제 13개품목, 생장조절제 1개품목 등 총 58개 품목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약사용 검사 방법으로는 첫번째 재고 및 구입목록 대장에 의거 실시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로 레이크(Lake) 등에서 방류되는 최종 방류수를 수거하여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두가지 방법을 병행 실시 할 예정이며 나아가 대량살포 업체에 대하여 검사방법을 강화하여 수질예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보광 휘닉스파크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 골프장 등으로 공정 98%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어 98년 상반기에는 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보광, 쌍용 두 회사에 농약사용량 및 사용품목 비교는 물론 농약살포시 현장확인 등을 거쳐 금지 농약의 불사용과 과다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계공무원은 해당지역 출장시 수시로 골프장에 농약사용 실태를 확인토록 하여 대량살포, 금지품목 사용 등 농약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유돈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토캠핑장 시설운영 타당성에 대하여 차 후 관리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오토캠핑장의 운영은 캠핑장을 찾아오는 피서객들의 안전도모는 물론 관광 자원의 풍부한 우리군을 알리기 위해 1일 근무자를 편성하는 등 시범적으로 군에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특히 토, 일요일에는 평창수상안전기동대의 협조를 얻어 피서객의 안전을 도모한 결과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니다.

오토캠핑장 운영실적은 금년 7월 13일 개장하고 8월 28일까지 운영한 결과 총 2,333명의 피서객이 이용, 663만 1천원의 청소비 등 수수료를 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 피서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캠핑장내에 연차적으로 나무식재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며 나아가 관리 운영은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유돈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탄지역 동굴탐사 용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탄지역의 동굴탐사는 당초 미탄면 주민들의 숙원인 동굴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차에 걸친 미탄면 주민들의 건의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동 용역은 강원대학교와 97년 6월 30일 계약 체결하여 97년 7월 1일 착수 97년 11월 30일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그 목적은 미탄지역의 석회동굴을 전수 조사하여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 용역은 미탄면 번영회를 비롯한 미탄면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속에 착수 되었고 그 결과 40여개의 동굴을 탐사 하였습니다.

용역에 착수할 당시 주민들 스스로 참여를 요구해 와 과업지시서 상에 주민들이 참여를 원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언제든지 그 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동 용역은 계획대로 이루어

어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탐사가 중단 되지는 않았으며 마지막 탐사 작업중에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본 동굴에 대하여 정밀조사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동굴은 정상적으로 탐사 완료 하였습니다.

샘내굴의 경고문과 주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사 한 것은 용역탐사자들이 과거 수중탐사 경험만 믿고 탐사를 하였다고 봅니다.

이는 우경식 교수가 지역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탐사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탄면 일원의 동굴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용감한 사고자의 불굴의 개척정신을 항상 염두에 새겨두고 그러한 개척자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샘내굴 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가구가 6세대, 주변 지하수 및 굴물 이용세대가 17세대, 총 23세대로 현재 6세대는 굴물을 허드렛물로 이용하고 식수는 주변 인가에서 길러다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다. 군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8년도 미탄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시에 반영, 이들 가구에 상수관 본관을 연결하여 식수를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동굴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한 것이고 따라서 용역 수행자의 무리한 의욕으로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 그 책임 한계를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굴탐사의 승락은 별도로 하지 않았으며 지역여건과 분포된 동굴에 대하여 탐사일정과 계획, 그 방법을 결정한 것은 동굴 전문가들인 강원대학교 동굴탐사자들의 자체 결정사항 이었으며 동굴탐사는 주민들의 지원과 협조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끝으로 아무런 사고없이 성공적으로 탐사가 마무리 되어야 함에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아가 동굴탐사와 관련한 최대한안인 상수도 문제는 98년도 상수도 사

업계획대로 처리하겠으며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李相薰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燾文 議員 : 유든문 의원입니다. 오토캠프장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에 낚시터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 觀光文化課長 金永錫 : 네.

○ 劉燾文 議員 : 청소비를 징수한 것은 예산에 나와 있는데 낚시터를 운영해서 징수한 예산은 명기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觀光文化課長 金永錫 : 낚시터는 군에서 운영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임대해서 개인이 운영 한 사항입니다.

○ 劉燾文 議員 : 그렇다면 임대절차는 군에서 어떤 형태로 허가를 해주었으며 어떤 사람을 해주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觀光文化課長 金永錫 : 그것은 하천

점용허가를 득해서 미탄 차재천씨가 사용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劉燾文 議員 : 그러면 2억 3,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오토캠프장을 했는데 그 내에서 낚시터 허가도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이 된다면 나머지 낚시를 하지 않고 수영을 즐길 사람들은 어느쪽에서 수영을 해야 합니까?

○ 觀光文化課長 金永錫 : 그래서 수영장은 저희가 별도로 1단, 2단, 3단식으로 해가지고

○ 劉燾文 議員 : 칸이 막혀 있습니까?

○ 觀光文化課長 金永錫 : 물받이를 소형으로 해놓았었습니다.

○ 劉燾文 議員 : 지금 현재 되어 있구요?

○ 觀光文化課長 金永錫 : 지금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운영 기간동안은 수차에 걸쳐서 보수작업을 하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고 또 중고등학생이 놀 수 있고 일반인들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 劉燾文 議員 : 낚시터를 인허가 해주

면서 얼마만큼 군에다가 낚시터 운영기
간중에 얼마나 돈을 낸다던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혜택을 준 겁니까?

○ 觀光文化課長 金永錫 : 혜택은 아니
고 저희들이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 劉燉文 議員 : 사용료를 얼마를 받았
는지요?

○ 觀光文化課長 金永錫 : 사용료를 직
접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 劉燉文 議員 : 어느과에서 합니까?

○ 觀光文化課長 金永錫 : 하천점용허가
는 건설과에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劉燉文 議員 : 돈 징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 觀光文化課長 金永錫 : 그것도 고지
서가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 劉燉文 議員 : 다음 감사때 챙겨 보
겠습니다.

다음 동굴탐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
씀하셨는데 지금 미탄에서 상수도 물을
먹는데 거기에 경고문이 분명히 금지구
역하고 주의사항이 붙어 있는데 지역사

람이 강원대 우경식 박사께 전화를 걸고
찾아 갔습니다.

왜 남의 상수도에 들어 갔느냐고, 이 양
반은 대학교수로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양반이 무식하게 내가 관청의 인허
가를 받지 않고 들어갈 이유가 어디 있
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갔다 와서 한사
코 번영회 차원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평창군에 책임추궁을 한
다면 평창군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인
사 사고 때문에 많이 참았는데 지금 과
장님이 미탄 상수도 노후관 교체때에 상
수도 선을 연결해 주겠다고; 이 도시과 하
고는 어떻게 됩니까?

○ 觀光文化課長 金永錫 : 저희가 도시
과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 劉燉文 議員 : 노후관 교체를 해보야
지 그 예산에 남는지 안남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샘내까지 거리가 상당한
거리인데 본관이 전혀 없는데 본관을 시
설해야 되는데 예산이 대강 잡아도 1억
이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노후관 교

때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 이것은 사실 지역주민의 뜻이 없을 것 같아요. 지역주민이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 없는 답변이에요.

○ 觀光文化課長 金永錫 :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 劉燉文 議員 : 물론 과장님이 확인을 해가지고 물을 상수도가 그쪽으로 다 연결될 수 있게끔 책임을 지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신 걸로 믿고 주민들 상수도가 거기까지 간다 라고 해서 지금 참고있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서 앞으로 또다시 주민들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심각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觀光文化課長 金永錫 : 알겠습니다.

○ 李慶鎭 議員 : 이경진입니다.

국제동계대회 평창군협의회 운영, 96년 5월달에 준비위원회를 준비해서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창립총회를 안한 부분에 대해

서 제 나름대로 지적을 했는데 답변에 예산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을 하였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수차요구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번 삭감한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차라는 것은 의회에다 몇번 요구를 하셨는지 아니면 군수한테 얘기를 했는데 군수께서 보류한 것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추진하겠다, 지금 98년 동계아시아게임이 2월달에 있는데 지금 선거법상 창립총회가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하는데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또 위원회 구성을 481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1년 6개월동안 추진해야 할 문제를 추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무유기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보광 휘닉스파크 농약문제는 98년도 상반기에 38만평

개장을 합니다. 수차 얘기한 사항입니다만 제일 염려하는 것은 고독성, 맹독성 농약을 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없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검사해본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계속 쓰고 있습니다. 계속 쓰고 있는데 군에서 대처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실려는지 좀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 최종 방류수 관리를 위해서 민간업체에다 사설업체를 선정을 해서 또 구성을 해서 우리 분뇨처리장이라던가 쓰레기매립장 하고 관련해서 대행관리업체를 지정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觀光文化課長 金永錫 : 첫번째 질문하신 예산은 저희가 96년도 3회추경에 저희가 한번 요구를 했었고요. 97년도에 3번을 요구했었습니다. 당초, 1회추경, 2회추경 3번을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만 424명이란 인원을 저희가 어떤 유인물을 만들어야 하고 또 그분들이 오면 식사라도 한끼 제공해야 되는데 전혀 저희가 그만큼 재원이 없기 때문에 창립총회를 못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계획은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노력해서 집회하고 관련없는 시기에 창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농약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아직 개장을 안했습니다만, 개장을 하면 상주는 시킬 수 없습니다만 수시로 나가서 사용품목과 사용량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만약 그 품목대로 안했을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성분량을 조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그리고 개인한테 위탁한다는 것은 저희가 당장 관련업체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관련업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의 입장으로는 위탁관리를

할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 李慶鎮 議員 : 좋습니다. 좋은데 아니 과장님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한번 삭감한 기억이 있는데 총 합해서 세번 삭감했나요?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의장님 잠시 정회 할 것을 요구합니다.

○ 議長 李相薰 :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55分 停會)

(15時10分 續開)

○ 議長 李相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이경진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慶鎮 議員 : 정회전에 예산요구와 관련해서 네번을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두번을 삭감 한걸로 확인이 되었고 두번은 기획실에서 편성을 안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향후 98년, 99년 동계행사 준비를 위해서 빠른시간 내에 창립총회를 해서 지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최대한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觀光文化課長 金永錫 : 알겠습니다.

○ 議長 李相薰 : 관광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權赫昇 : 환경보호과장 권혁승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분뇨처리시설을 현재 30t규모에서 50t 규모로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13억 8,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북부권에다 다시 분뇨처리장을 신설해서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분

뇨처리장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분뇨처리장 시설 현황은
 평창 노론리에 1,894평에 1일 30t규모로
 92년도 11월에 12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준공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92년 설치당시 관내 분뇨의
 총 발생량 40t 중에서 30t은 분뇨처리
 시설에 의해서 처리하고 나머지 10t은
 해당 농가가 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계산
 해서 시설된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93년부터 농촌생활환경이 급속
 히 개선 되고 있고 특히 농가가 과거처
 럼 분뇨부숙 퇴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피
 하는 현상이 있고 또 그 사이에 관광인
 구가 급격히 증가해서 우리 관광문화과
 의 통계를 보면 하루에 유동인구가 약 3
 만7,000명정도 되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사실상 우리 평창분뇨
 처리장 가지고는 관내 분뇨발생량 전량
 을 처리하기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
 니다.
 그리고 97년 9월 18일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해
 서 분뇨처리 시설의 방류 수질이 종전에
 BOD,SS, 대장균군은 종전과 같이 30, 30
 대장균은 3,000개 이하로 동일하게 나왔
 지만 총질소는 종전에 120 이하에서 60
 이하로 강화가 되었고 총인은 16이하에
 서 8ppm 이하로 나왔고 COD는 과거에
 규정이 없던 것이 50ppm 이하로 다시 생
 졌습니다.
 이렇게 강화됨으로써 탈질소나 탈인시설
 을 99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설치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증설 및 보완사업은
 필수사업입니다.
 우리가 평창분뇨처리장은 92년 11월 준
 공 되었지만 96년 1월 1일부터는 질소
 및 인 제거 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법
 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분리해서 운영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차
 피 손을 대가지고 탈질소, 탈인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은 이런 사항 때문에 96년도에
 증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총 소요예산
 액을 24억 2,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판

단을 하고 그 국도비 지원을 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를 했는데 97년도 1회 추경 예산으로 양여금 9억 6,900만원, 군비 4억 1,500만원 등 총 13억 8,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24억 2,000만원에 10억 3,600만원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금년 6월 4일 환경부와 내무부에다 부족액 10억 3,600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금년 9월 중앙예산에 98년도 예산으로 도저히 반영할 방법이 없다 해서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시설은 기존 예산 내에서 우리 군비를 최소한 적게 들이면서 증설하는 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기존시설중에서 현재 구조물을 그대로 활용하고 거기에다 증축만 하고 기존 부지 및 저류소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증축만 한다면 기계설비를 거기에다 붙여서 한다면 약 15억 7,500만원이면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을 남

부권과 복부권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증설 및 보완이 사실상 불가피한 실정이고 분뇨처리시설을 신규 설치시에 30t 규모로 해도 약 30억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연간 우리 평창 분뇨처리장일 경우에 직원이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약 2억 6,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해서 분리설치 및 운영하는 자체가 우리군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쓰레기매립장도 전 시군이 그렇습니다만, 전부 7개 8개로 나누어 놓았던 것을 전부 통합해서 처리하고 있고 분뇨처리장이라던가 각종 시설을 유지관리비 때문에 전부 통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분리하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다음 방류수질검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매월 분뇨처리장의 방류수질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BOD나 SS는 법적 방류 기준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총질

소는 기준치보다 약 2배씩 나오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분뇨처리장 시설에 당초 시설당시에 탈질소, 그러니까 질소제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현재 나오는 그대로가 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공사를 어차피 해야 합니다. 그다음 총인제거 시설은 없지만 저절로 제거가 일부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공법이 액상 부식법인데 이 공법 자체가 총인은 일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설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99년 1월 이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해서 활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진 의원과 이수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의 준광역화와 매립 위주에서 소각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 실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미탄면을 제외한 7개읍면이 모두 단순매립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99년까지 간이매립장 자체가 포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군 위생매립장은 각 읍면이 위생매립장을 모두 시설 하도록 지금까지 기존 계획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추진한다 그러면 설치비만도 약 21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유지관리비도 약 3억원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7월 19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침출수 처리기준이 종전 BOD SS 50ppm에서 30ppm 이하로 강화됨으로 해서 개소당 약 12억원정도의 침출수 처리시설이 어차피 또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 이런 시설들을 최소한 3년 내에 다 완료를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부지가 확보된 3개지역을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준광역화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광 휘닉스

파크에서 전액 부담해서 시설할 계획인 봉평매립장은 봉평면과 용평면이 사용토록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 국도비 22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설치 계획인 대화위생매립장은 이미 설계가 다 되어서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평창읍, 방림면, 대화면 3개면이 사용토록 하고 진부 송정매립장은 지금 부지 동의는 다 받고 감정중에 있습니다만 진부면 하고 도암면이 사용토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광역화 할 경우에 매립 완료되면 쓰레기매립장을 안했던 다른면으로 매립장을 설치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매립장을 시설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고 침출수 처리도 약 24억원을 투자해서 관내에 1개소만 설치하고 다른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탱크로리 라던가 이런 자동차로 수송을 해서 처리하도록 해서 유지관리비를 절약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매립

위주의 쓰레기를 소각위주로 전환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전체 쓰레기소각시설은 평창이 시간당 195kg, 미탄이 95kg, 대화가 300kg의 소각시설을 갖추고 하루에 약 2t정도 소각을 3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쓰레기는 관내 34t정도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봤을 경우에 2t을 소각한다 하는 것은 너무 적은량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소각하는 쓰레기는 부피는 많이 나가고 무게는 적게 나가는 것들이 소각대상이기 때문에 양으로 따지면 우리 쓰레기차로 약 두차 정도 매일 소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한대로 소형소각로가 문제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우선 우리 주민들이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해서 수거를 안하는데 큰 문제가 있고 또 평창이나 대화소각로일 경우에 하루에 소각로 라는 것이 하루에 8시간 이상 가동을 해줘야지만 거기에 있는 흐르는 물들이 얼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평창의 경우에는 격일제로 실시 운영하고 있고 하루 가동을 하고 하루는 가동을 안하고 그러니 양이 그만큼 적다는 얘깁니다.

그다음 대화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3 시간밖에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화의 경우에는 특히 이것이 수냉식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사실상 가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쓰레기 발생량으로 봐서 30t내지 40t 규모의 소각시설을 갖추고 그다음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자리만 잡힌다면 관내에 나오는 쓰레기 약 70% 이상을 소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판단을 하고 원칙적으로 대형소각로 설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소각로 설치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소각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타시군의 예를보면 소각할때 1t 소각하는데 약 3만 1천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 되는데 비해서 매립시에는 1t당 1만 2천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되니까 우선 경비에서 절약이 되고 또 중요한 문제는 하루에 폐기물관리법상에 50t이상 소각할 경우에 발생하는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0.1ng/m'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ng/m' 이라는 것이 1g의 10억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세하게 강화를 하고 있는데 0.1ng/m' 이라는 것은 국제협약으로 결정된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맞추는 것이 국내기술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로 서울의 어느 구에서 100t규모의 쓰레기소각시설을 이 다이옥신 때문에 운영을 중단한 예가 금년도에 있습니다.

환경단체 하고 환경부가 검사를 해보니까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230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단한 예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쓰레기 소각시설을 하고 있는데도 전국 3개 시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좀더 신중

하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던 소각쪽으로 가야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꼭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결을 해야 할 과제는 매립장이 7-8개 읍면에 전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은 어느 장소에 할 것인가 이것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광역화 하는데 우선 중점을 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시간을 두고 전국의 타시군 운영 실태등을 견학 하는 등 조속한 시일내에 쓰레기 문제를 검토를 해가지고 소각중심의 쓰레기처리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돈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창강 환경오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하천은 17개소 하천이 있습니다. 이중에 오염요인을 저희 실무자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하루에 생활오수가 약 6,200t, 32,000드럼 정도 배출된다고 보고 각종 세제인 트리오, 풍풍,

샴프 등이 약 3드럼, 그다음 비누 사용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외에도 축산폐수가 하루 315t 정도 발생되고 있고 그것 외에도 비료, 계분 등이 농경지에 쳐져서 그것이 강우시 유실되어 하천에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군에서 추진에 150t, 장평에 250t, 봉평에 250t의 농촌 오수처리시설을 건설을 했습니다만 오수처리시설도 사실은 장평이나 봉평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 오수처리시설은 400t 미만으로 설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광 휘닉스파크는 단지내 처리를 위해서 5,000t 규모의 오수처리를 시설을 하고 있고 축산폐수는 120m' 이상의 축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저희 환경보호과의 폐수배출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강우시에는 축사가 운동장에서 나와 바로 하천으로 직유입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97년도 평창강수계 하천수질검사 실시 결과 평균 BOD 농도가 0.78ppm으로서 아직은 1급수질을 유지할때가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첫 비가 올때나 이럴때는 그 쌓여있던 유기물질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흘러 내리기 때문에 이때는 아마 2-3급수로 밀려난다고 보고 그다음 흙탕물 관련 오염문제에 대해서도 공사장을 48개를 저희가 관리하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도 했고 행정지도도 여러차례 했고, 또 읍면에서도 하천 책임담당 구역을 지정을 해서 1인 1회씩 하천변으로 순회하고 흙탕물 감시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큰 문제는 공사장이 아닌 농경지에서 흘러 나오는 흙탕물이 현실적으로 지도할 방법도 없고 큰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농가가 객토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로타리 경우에 의해 가지고 토질이 미세하게 분쇄가 되어서 비만 오면 슬라이딩 현상에 의해서 하천으로 바로 직유입 되는, 그래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일이 평

장히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금년도에만 다섯, 여섯차례 비올때 우비를 입고 골짜기마다 다녀 봤는데 공사장에서 나오는 물도 물이지만 그것은 단속이 가능한 것이지만 각 농가 농경지에서 나오는 흙탕물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사장 흙탕물 관계이지만 하천관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상에 공사장에 대한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내용이 법규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가물막이라던가 이런 약식 방지시설만 설치하고 공사를 하도록 행정지도에 그치고 마는 그런 실정이고 또 하천이나 토목공사 이런 부분은 감독부서가 따로 있고 환경감독 부서는 저희한테 또 있어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환경보호과로서는 어려운점도 여러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공사장 흙탕물을 줄이기 위해서 각 공사장을 다니면서 서약서도 징구를 해봤고 하천수를 수거 해서 수질검사

도 의뢰 해보았고 또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공문서도 발송을 각 사업장 마다 몇차례 했고 토사유출 방지 관련 실과 지도감독 협조공문도 발송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비가 안오는 맑은 날에는 면은, 진조 이런 쪽에도 괜찮은데 비오는 날은 어디나 전 지역이 부유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적발을 해가지고 조치한 내용을 보면 계촌천 정비사업을 발주한 신한건설외 8개 사업장을 적발을 해가지고 3개 사업장을 고발을 했는데 신한건설만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약식 기소에 의해서 벌금 100만원이 나왔고 보광 휘닉스파크나 고속도로 공사장인 극동건설은 검찰에서도 관련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평창강 수계 오염원을 줄이기 위하여 흙탕물 발생에 따른 하천 오염원에 대해서는 하천 관리부서 공사감독 부서와 협조해서 공사착공 단계부터 환경오

염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흙탕물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고, 또 평창강 수계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평창, 봉평, 용평 등 인구밀집 지역에는 생활오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사항으로 시설설치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또 관내 하천의 오염원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세제나 생활하수 줄이기 중점 홍보 및 지도를 대 주민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 나가고 공사장의 토사유출 방지대책, 또 하천변 정화 활동도 강화를 하고 축산농가 폐수처리대책등도 오염요인을 줄여 나가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李相薰 : 보충질문 하실 의원 제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議員 : 이수현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쓰레기매립장 준광역화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봉평과 용평이 같이 쓰고 평창, 방림, 대화, 그리고 진부하고 도암면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것은 내가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사실 이렇게 하고싶지 않아서 안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어떤 쓰레기매립장 유치지역에 대한 주민들을 이해 내지는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까 군정질문에도 말씀 드렸습시다만 이 쓰레기매립장 유치 지역에 대한 어떠한 간접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이 문제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쓰레기매립장 유치지역에 대한 간접지원 방안이라던가 계획이라던가 또 앞으로 이렇게 준광역화를 추진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다

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權赫昇 :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다 혐오시설, 또 넘비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걱정한 보상책이 없으면 전국 어디서나 받아주지 않는 그런 시설이 틀림 없습니다.

우선 주민들 설득을 시키겠습니다만,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있는것은 3-4년차로 해당 읍면당 약 2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주민을 설득 하겠다 이런 기본 입장입니다.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기본 안입니다. 별도의 모임이 있을때 간담회라던가 이럴때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지역의 번영회라던가 여러분들 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상차원의 금액이라기 보다도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언제 해결해도 해야될 숙원사업을 그래도 체계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을 해준 이런 사업비로 감안해서 3-4년차 사업으로 매년 몇억씩 넣어서 20억 규모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안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 李洙現 議員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간접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어떤 청사진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될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연히 굵어서 부스럼 만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權赫昇 : 협조사항은 읍면장 하고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별도의 모임을 갖고 깊이있는 대화를 한번 나누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은 아까 답변에서 안드렸었습니다만 지금 보충질문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별도로 모임을 가져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李洙現 議員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金樂雲 議員 : 김낙운 의원입니다. 분노처리장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92년 당시에 분노처리장을 건립하기 위

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던걸로 기억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분노처리장을 설치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오래동안 분노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4년만에 포화상태가 되어서 증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충분한 자료조사가 좀 미흡했던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30t에서 50t으로 증설한다 하더라도 불과 몇 년 못가서 또 포화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20t을 증설했을때 몇년동안 더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을 좀 투자하더라도 적어도 10년 이상은 분노처리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權赫昇 : 구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증설해야 되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 두가지가 첫째는 유동인구가 많이 들어와서 수거식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는것 하고 둘째는 과거에는 90년대초만 하더라도 농민들이 분노를

부속시켜서 퇴비로 많이 썼는데 이제는 그것이 귀찮아서 전혀 그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는 그 두가지입니다.

혹간에 우리 주민들은 잘못 이해를 해서 관내에 대형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음식점, 숙박업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양이 초과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평과 보광 등 대형업체는 자체에서 처리가 다 됩니다. 이쪽에 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대형업체 킴스클럽이라던가 연수원이라던가 이런 곳도 다 처리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오니만 여기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는데 이 시설은 큰 무리가 안갑니다. 문제가 되는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동인구가 1일 약 3만 7천명 되다 보니까 특히 하절기에 하루에 처리할 양을 다 못하니까 진부면은 내일 와라, 시간을 조정을 해줘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이 계획대로 증설이 되면 앞으로 10년간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수치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들 힘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뢰를 해가지고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면 설계를 용역을 하면 어차피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劉燾文 議員 : 유돈문 의원입니다.

평창강 오염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도 했습니다만, 강변아파트, 유존아파트, 거기에는 세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이면 강물에 거품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과장님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그것은 어디 생활폐수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 環境保護課長 權赫昇 :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아침에 검사를 해보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니다.

○ 劉燉文 議員 :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회에 나오다 보면 과장님은 군청으로 들어가서 안보이겠지만 다리 앞에서 제가 보면 평창 강변아파트, 유존아파트, 거기에 세차장이 있는데 가만히 갔혔다가 밤을 틈타서 강에다 유입시키지 않나 이런 정도로 의심이 가는데 꼭 아침에 발생합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사실 적발을 했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무 대책이 없다면 평창강이 오염을 코밑에서 하는데도 지금 두고 보고 있다는 지금 읍민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을 확인하셔서 어디에서 폐수가 나오는지 적발하셔서 그렇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權赫昇 : 알겠습니다.

○ 李慶鎭 議員 : 분뇨처리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분뇨처리장 30t규모를 50t으로 증설하는 이 계획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 위해

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남부권하고 북부권하고 분리해서 시설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30t규모를 신설하려고 하면 30억정도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도 막대한 자원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서의 돈에 너무 연연해서 환경보호에 생각이 뒷전으로 가는 우려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런 사항이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데 그 사항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평창군수가 취임한 이후에 우리 평창군에서 농지전용 6건을 신청을 했는데 6건이 다 공교롭게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5건을 불허신청을 했습니다. 5건을 불허신청을 하시면서 그 내용이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 문제 때문에 불허신청을 해서 행정심판에서 전부다 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평창 분뇨처리장의 질

소 수치를 볼것 같으면 97년 4월 16일부터 140일 200일 해가지고 10월달까지 기준치를 전부다 2배 이상 초과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분뇨처리장의 최종 방류구를 아는 사람은 평창군에 한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수, 폐수, 최종 방류구에 보이면 업체는 무슨법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환경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다 신고를 해야 한다, 기준치는 얼마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최종 방류구가 어디인지, 그렇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분뇨처리장 증설을 단순히 하신다고 얘기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상시 성수기때는 어떻게 처리 할것이며 지금 하면 막연하나마 50t을 해놓으면 10년정도는 쓸것이다, 비상시에 사고가 나고 물량이 폭주했을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분뇨에 대한 수거된 차가

버릴 곳이 없어서 산꼭대기에 버렸다가 벌금을 물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보면 시군단위별로 분뇨처리장을 2개소를 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운영면에서도 그렇고 운번제로 사용할 수 있고 비상시에 교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분뇨처리장 시설은 지금 현재 예산투입이 하나도 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부쪽에서 쓸 수 있게 하고 북부쪽에서 신규시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방류구 관리문제, 그리고 질소 과다 검출에 대한 7개월만에 어떻게 대처 하셨는지 추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權赫昇 : 아까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5억 7,500만원 소요되는 시설을 시설확장도 하면서 질소를 제거하는 시설을 하

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99년 1월 1일 이전에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치가 많이 나오는 것은 질소 제거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 李慶鎭 議員 : 방류수 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權赫昇 : 방류수는 현재 나오는 물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물을 계속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맑은 물이 나옵니다.

○ 李慶鎭 議員 : 방류구를 처음 시공하실때 주민들과의 약속이 방류구를 평창강 쪽으로 배출 하는걸로,

○ 環境保護課長 權赫昇 :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李慶鎭 議員 : 그렇다면 담당자가 바뀌면 바뀔때 마다 이어져서 계속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평창강이 망가

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양질의 분뇨를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남부권, 북부권 분리해서 시설하는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金斗經 議員 : 김두경 의원입니다.

봉평쓰레기매립장 시설비는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시설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가능한지, 어떤식으로 부담을 하라고 할려는지 말씀 해주세요.

○ 環境保護課長 權赫昇 : 우선 보광 휘닉스파크가 부담을 해가지고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설계는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지금 납품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군청으로 들어오면 군청에서 접수를 해서 설계 검토를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지만 사업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 받은것은 그 처리가 기준에 적합한가, 침출수 처리는 완벽한가, 이런 것은 설계도서상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겁니

다. 그래서 일단 설계비는 보광에서 부담을 했고, 시설비는 약 21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봐가지고 금년 4월달에 시설비가 설계에 나오는 시설비 전체를 군에다가 납부를 하면 공사발주는 군이 한다, 이렇게 협약이 금년 4월달에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년 7월 19일자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50ppm에서 30ppm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침출수 처리시설을 별도로 하는데 약 12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보광에서 추가로 부담 해주기로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협약까지는 안되었습니다.

○ 金斗經 議員 : 문서화로 협약을 체결해야지요?

○ 環境保護課長 權赫昇 : 문서화 협약이 4월달에 되어 있습니다.

기존 되어 있고 침출수 처리만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협약서를 변경을 하면 됩니다.

○ 金斗經 議員 : 승인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 環境保護課長 權赫昇 : 승인은 환경부 전문가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 金斗經 議員 : 12월달에 발주된다고 하던데 안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權赫昇 : 안됩니다.

○ 金斗經 議員 : 12월에 발주라고 나왔는데

○ 環境保護課長 權赫昇 : 아니 발주라는 것이 설계가지고 저희가 승인신청 올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 議長 李相薰 :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50分 停會)

(16時07分 續開)

○ 議長 李相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政課長 辛永善 : 농정과장 신영선입니다.

먼저 김종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내 전 지역 농업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대한 중점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농촌발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업발전에 대한 기본방향은 첫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개선으로 과거 생계위주의 농업, 즉 토지, 노동, 자본의 개념에서 기술, 경영이 결합된 새로운 경영주체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두번째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전문인력을 중점 육성하여 전통적인 생산방법에서 탈피하여 생산성 향상과 유통, 가공, 판매등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며 세번째, 생산기반정비와 영농규모 적정화를 위해 경지정리 및 농지구입 자금 지원, 농지매매, 농지 장기

임대차, 농지교환 분합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네번째, 농업기계화 및 시설 현대화, 다섯번째는 농업기술 혁신과 정보화 추진, 여섯번째는 농산물 유통개선, 일곱번째는 농산물 수출진흥을 농업발전의 기조로 삼고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지원현황은 기 제출한 서면답변으로 말씀하겠습니다.

1단계 농림업 추진 결과를 보면 94년부터 97년까지 농어촌발전 투자계획은 총 1,277억원이었으나 지난 9월말 총 1,608억원이 투자되었고 증액투자된 재원은 국비가 72억원, 용자는 2,200만원이 감이 있었고 지방비 125억원, 주민부담 133억원등 총 331억원이 증액 투자되었으며 1단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앞서 답변드린 우리군 농업발전 기본방안에 부합되도록 99년부터 2004년까지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농특산물 고유 브랜드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농산물이 전면 수입 개방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우수한 청정 농특산물을 보호하고 차별화 하기 위하여 98년도에 평창군 농특산물 고유상표 출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및 가공품 등 8종 124개 품목을 출원 등록하게 되며 우리 평창군 농특산물의 청정 이미지를 브랜드 함으로써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은 매월 2회에 걸쳐 행정기관과 농산물검사소, 농·축협 합동으로 11월까지 88명의 단속반원이 347개 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42건, 고발 1건 등 총 43건을 적발하여 의법조치 하였고, 앞으로 국산농산물의 품질 차별화를 유도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본 제도를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으며 특히

연말연시와 설날 등 명절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원산지 표시 정착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Marketing)전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라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자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해 왔으나 이는 과잉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임시방편적 처리에 지나지 않아 농산물 제값받기는 물론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미흡하였다고 판단되어 앞으로는 농산물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는 감자캐기, 깻잎, 산채, 고추따기 등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호흡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작물재배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우리군의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판매 홍보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우리군 농특산품 유통 계획반을 구성하여 대도시 농특산품 전시 판매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홍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우위성을 확보하고 98년도에 도암면 차항리에 건설될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에는 평창군 농산물 홍보관을 개장하여 우리군 농업의 역사화 맑고 깨끗하며 신선한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 대도시 직판장 설치운영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판장 경영수지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7월 3일까지 1억 5,400만원, 판매 구매원가가 1억 1,500만원, 운영비 3,900만원의 경영비가 소요되었으나 판매액은 1억 3,300만원에 그쳐 당기 매출에 대한 순소득은 2,100만원이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고 7,300만원을 포함하면 5,200만원의 순수 재고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부실운영의 원인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

금등 무리한 자부담금의 충당으로 자금 압박으로 인한 운영비 부족은 물론, 직전회장의 경영전문지식 부족 및 수시 출타, 잠적 등 경영자로서 성실성 부족과 계획성 없는 방만한 운영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부담금 1억 8,300만원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시간 부족을 이유로 이사회 인준없이 직전회장과 직전 사무국장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절차에 관한 흠이 발생하였고 농업경영인 연합회 이사회 차원에서도 사전 자금집행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도 경영부실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2억 5,000만원은 전액 건물 임대료로 사용되었으며 97년 2월 5일 전세 설정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자부담금 1억 8,300만원의 집행내역은 인테리어, 조명시설, 간판 등 내부 인테리어에 2,980만원이 소요되었고, 냉동시설, 냉난방 온풍기, 냉동육절기 등에

8,430만원, 점포 신설에 따른 바닥 타일이라던가 기타 방화시설 설비에 7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타 집기구입비 식육점 집기, 전산저울 전화기, 진열대 등에 5,870만원이 소요되었고 기타 비용으로서는 근거당 설정비, 등록비 홍보전단 인쇄비 등으로 3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전세권 채권확보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은 총 4,115㎡에 지하1층 지상6층 건물로 96년 12월 9일 금보프라자 송중학 외 1명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이 등기가 되었으며 직전회장 김충식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건물소유자의 부채관계 총 32억7,400만원으로 채무자인 교보생명에서 97년 7월 3일 입의 경매 감정가격은 약 43억원에 달합니다.

채권관리 차원에서 97년 9월 12일 전세권설정 명의를 신임회장의 1인의 명의로 공동 명의변경 하였고 건물소유자의 재산조회와 경매 낙찰 결정시 배당금 가압

류 조치로 채권확보 방법을 법조계에 자문하여 강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평창군농업경영인연합회 신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경영부실 등 돌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신속하게 해결책을 강구하고 신도시 조성지와 지하철역 개설 지역과 인접한 본 직판장이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과의 협력사업 지원 계획 및 신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과의 협력사업은 지난 9월 한달동안 읍면 및 회원 농협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회원 농협 신용조사를 거쳐 군에 신청한 조합원은 총 744명에 신청금액은 236억 4,100만원으로 평창군농협 군지부 신용조사 결과 13명이 탈락이 되고 731명이 대출 가능으로 회신되어 협력사업 심의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심의를 하였고 대상 농가에 대한 지원기준은 읍면 농협, 지도직공무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기준에 의거 자체심의를 한 후 지원금액을 확정하도록 읍면

산업개발계장, 읍면회원 농협전무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시 시달 하였습니다.

시달한 심의기준은 첫번째 군에서 지원
하는 농림사업 정책사업중 시설완료 후
가공, 저장, 포장, 가축입식 등 운영자
금 및 운전자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는 우선 지원토록 하고 단순 중복투자부
분에 대해서는 제외토록 조치를 하고
두번째 투자효율성이 증대되는 시설자금
은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경영사업비 보
다 우선 지원 검토하며

세번째 운영자금은 농업경영 규모에 따
라 차등 지원하도록 심의기준을 시달하
였습니다만, 일부 읍면에서는 구체적 자
체 심의기준 없이 배분식으로 배정 확정
하여 일부 농가의 불만을 초래하는 사례
가 있었습니다.

본 협력사업비는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
을 기하고 농민 자율사업 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 기반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실
시한 사업인 점과 제한된 재원으로 신청
농가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점
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대농민

홍보를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노력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중복지원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
겠습니다.

농림사업 지원기준의 원칙은 단위 사업
수, 즉 메뉴를 자율사업 39개, 공공사업
95개로 정하고 농림사업에 대한 사업신
청 요령을 공고하여 농업인 자율성을 부
여하고 선진 농업을 주도할 전문 경영체
로 육성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부 농림사업 지원이 중복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영세농가들이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지원
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것이 현실이
기 때문에 가급적 단순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금년도 협력사업비 추가 확보 계획은
없으며 98년도에는 농협과 협의하여 지
원사업비를 확보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참고로 금년도에 무장공비 침
투 관련 농업경영자금 31억원, 강원도농
업진흥기금 10억, 농업협력사업 82억원
등 총 금년도에 148억원의 농업경영자금

을 지원해서 우리 관내 농가에 관한 시설 작업이나 농업 경영자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李相薰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議員 : 이수현 의원입니다. 대도시 직판장 설치 운영 결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2,100만원이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고 재고 7,300만원을 포함하면 5,200만원의 순수 재고가 있다 라는 답변 조차도 사실상 믿을 수가 없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면 이목정에 있는 농산물직판장도 분명히 순수익이 1년에 1,500만원인가 된다 라고 답변 하셨어요.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제가 알고있는 자료하고 전혀 다른 자료를 제공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

서 답변을 해주시고 전세권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심도있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작년에 전세권 설정을 진행중이라고 답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97년 2월 5일날 설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배당금의 가압류 조치로 과연 보조금 2억 5,000만원에 대한 배당금이 만약 경매가 되었다고 봤을 때 전액 건질 수 있는 것인지, 설정등기가 순위가 몇번이나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農政課長 辛永善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2억 5,000만원에 대한 경매신청에 대한 순위는 저희들이 3순위입니다. 이 3순위에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교보생명에 대한 채권 보존 가압류 신청을 변호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감정가격은 43억입니다. 그다음 건물소유자의 부채관계는 32억입니다. 결국은 11억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실지 경매를 들어가면 이 정도의 금액은 떨어질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에 대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압류 조치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나름대로 변호사 하고 자문을 구해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직판장경영 수지가 작년도 저희들이 3개월치를 보고할때는 처음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는 관리가 제대로 되었었고 금년도 1월 말부터 관리가 사실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회장이 개인적인 신상을 이유로 3개월 동안을 관련 부회장들까지도 속이면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부실운영이 계속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신임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공인회계사 라던가 자체 감사기능을 발휘해서 전부 일단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보고드린대로 경영상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보고드린 것은 그쪽의 나와 있는 단순한 수치를 가지고 계산 한 것이고 지금 나온 것은 감

사하고 회계사가 작성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李洙現 議員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심도있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협 협력사업, 수차례에 걸쳐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를 방문해서 협력사업비에 어떤 공정한 배분을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질문을 드렸더니 어떤 읍면에는 신청자의 5-600백만원 정도 1인당, 배당이 되는가 하면 어떤 읍면에는 2,000만원 이상씩 돌아가는 이러한 불균형이 초래 되었어요. 사실 상 우리 돈이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500-600만원씩 돌아가서는 혜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본 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서 보면 말이지요. 협력사업 심의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심의를 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2차에 걸쳐서 심의한 내

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 내린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결재권자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농정과장께서 예산을 집행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어쩔수 없는 현실이다, 중복지원된 부분도 3중 4중 5중으로 지원받고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이러한 특별한 농가들은 분명히 본 의원이 어떤 지침을 작성을 해서 각 읍면에 하달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도 읍면에 하달한 지침서를 보면 군에서 어떤 신청자가 많으니까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이러한 지침서 밖에 안됩니다. 읍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지침을 내려준 바가 없어요. 책임은 너희들이 지라는 식이에요. 읍면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어요. 답변서에 보면 지금 농정과장께서는 그런부분이 전혀 시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불가피한 현실이고, 어쩔수 없는 현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政課長 辛永善 :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협력사업 87억 2,000만원은 저희들이 첫째 목적은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일단은 농협과 협력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 그다음 읍면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할 것인가 해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농촌지도소장입니다. 그다음 행정과 농협에 관련된 과장과 농협 차장으로 구성된 9명이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약 4시간에 걸쳐서 심의를 했었는데 문제는 신청자 위주로 배정을 하게 되면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가 된다, 예를들면 미탄 같은 경우에는 한 4억이라는데 진부면 같은 경우에는 22억 정도가 배정이 된다 이런 결과에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지역간의 균형적인 배분을 하게 되면 신청자가 읍면별로 숫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신청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짧게는 800만원, 많게는 2,200만원까지 돌아

잡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저희 심의 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각각 구구각색이고 또 결정을 못내렸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사업비를 배정할 것인가, 700명에 대한 심의를 사업계획서 한장 가지고 군에서 심의해서 농가별로 지원금을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책임을 전가한다는 그런 의심도 저희들이 받을만한 여건은 되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불공평하게 해서 나중에 사업비를 87억을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배분을 하 서 불공평한 불만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드린대로 읍면 산업계장과 읍면 농협의 전무를 전부 소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림사업,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중에서 예를 들어 건물을 저장고를 지었다, 그러면 저장고만 달랑 지었지, 그 안에 운영되고 있는 부수적인 지게차라던가, 기타 파레트라던가 이런 것이 없을 때에는 그

부분에 사업이 들어온 부분은 다른사업에 우선해서 사업비를 배정을 해주고 그다음 두번째는 일반 농업 경영인들보다 투자효율성이 증대되는 신설작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조치를 해라, 그다음 마지막으로 운영자금도 신청은 대개 상한선이 3,000만원이니까 거의가 3,0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자금도 규모별로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해줘라, 이런 회의상에서 몇번씩 강조를 했고 그다음 저희들이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하면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읍면장과 농협장이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배정해라 하는 얘기는 분명히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지시를 했고 회의석상에서도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제가 몇번씩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때는 일부 읍면에서는 여러가지 자료를 취합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어렵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신청자에게 나누기를 해서 배

부한 읍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읍면은 실질적으로 심의를 잘해서 시설자금이 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을 많이 해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배정한 읍면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 읍면에서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와서 수정을 해라, 이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일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다음은 공정한 배분이 안되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은 중복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림사업이라는 것이 자꾸 중복이 된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여러번 받았 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율사업이 공고화 되었기 때문에 자율사업이 1년전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익년도 초 1월부터 1월말까 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농민들이 신

청을 안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지원을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농업경영 규모가 크고 대외적으로 정보 기술이 발달된 분들은 그런 사업을 많이 신청을 하게 됩 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고랭지유통 지원사업을 신청한다던가, 무 슨 저온저장고를 신청한다던가 이러한 메뉴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면 불가피 하게 저희들이 심의를 하다 보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림 사업의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예를 든다면 도에서 자체 지하수개발 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의 사업 이 농림사업을 거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李洙現 議員 : 한가지만 제가 보충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협력사업비 부분

은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어떤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시설자금으로 용자된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사항이 없어요. 이 시설자금으로 이용을 안할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政課長 辛永善 : 당초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읍면에 신청을 받으면서 농협 실무진 하고 우려가 생기는 부분이 반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87억에 대한 부분보다 상당히 많이 300억 정도가 신청될것이 아니냐, 왜 그런 우려를 했나 하면 운영자금은 신청 상한선이 3,000만원이고 시설자금은 5,000만원입니다.

누구나 심리가 상한선을 신청하는 겁니다. 사전에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보고 전체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표본을 검토를 해보니까 농사 2,000평 짓는 사람도 3,000만원을 쓰겠다고 신청을 했고, 농사 10,000평 짓는 사람도 3,000만원을

쓰겠다고 신청을 했고,

○ 李洙現 議員 : 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시설자금 명목으로 용자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안했을때 그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 農政課長 辛永善 : 시설자금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 하고요. 뭐냐하면 자금을 취급하는 농협과 그것은 자금관리는 전부다 농협 쪽에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많이 안했다, 했을때는 자금조치를 어떻게 할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군지부와 저희가 합의를 한 다음에 추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洙現 議員 : 사전에 준비가 안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사업비 집행과정에 사전에 충분히 농정과에서 어떤 사업시행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었어요. 제가 봤을때는.

○ 農政課長 辛永善 : 협력사업비 자체가 우리가 농림사업처럼 뚜렷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 그다음 필요하다면 우리지역 특화에 맞는 시설을 하는데 도움을 주자 그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검사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 李洙現 議員 : 알겠습니다.

그 부분 협력사업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상당히 취지에 대해서는 좋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물론 불가항력인 부분도 있겠지만 담당부서의 어떤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아쉬웠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차후라도 이러한 협력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러한 부분을 거울삼아서 순수한 진짜 농사를 위해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극소수의 이런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비가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李相燾 : 우강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대도시 직판장 금보프라자 자산이 43억이 확실합니까?

○ 農政課長 辛永善 : 네. 확실합니다.

○ 禹康鎬 議員 : 그럼 소유자가 개인부채 32억, 11억 차액이 남는데 11억 차액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2억 5,000만원 받을 수 있는 확률중에 몇%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32억이나 43억이나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경제에 나오면 이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상당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금보프라자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도 43억정도 자산이 된다고 그러는데 30억에도 안산답니다.

30억에도 살 일이 없다고 그러던데, 11억 차이가 생길 일이 없었던데요.

2억 5,000만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11억에서 받겠다는 의지 말고

다른쪽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협력 사업에 대해서 이수현 의원께서 자세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농정과장께서 상당히 여러번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를 방문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20% 임의 조정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군수께서 조정하신 그런 부분이지만 87억이라는 돈이 사실 굉장히 큰돈이잖습니까? 지역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이런 좋은사업 마무리가 잘돼야 되는데 실지 마무리는 아주 좋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공정한 배분문제에 대해서 농정과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배분의 당위성도 물론 없어요. 4차에 5차를 걸쳐서 중복보상이나 아니면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제가 진부지역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진부지역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저희 면사무소에서 이것을 홍보하느라고 모임 있을때마다 홍보를 했어요. 농민들한테, 그냥 195명, 194명이 이 자금을 받겠다고 신청을 한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끝에

이렇게 194명 195명씩 신청을 했는데 임의로 잘라서 지역별로 지역세에 의해서 배분을 했단 말입니다.

뭔가 좀 안맞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다가 똑같이 읍면세로 받아야지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도록 용자를 받으려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엄청난 시간을 소모하면서 이것을 홍보를 했다고요. 그런 부분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가만이 있다가 몇천만원 받아가는 사람에 죽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몇백만원 밖에 못받는 그런 배분율이 정당성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농정과장 입장을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정한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 각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이제는 다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추후 이런일은 아마 면세를 고려하던, 아니면 신청자 수를 고려하던 금액에 맞추어서 다른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가만이 앉아서 몇천만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면장이나 군의원이 그렇게 할일이 없습니까, 이것 홍보하고 다니게,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자해서 홍보를 했는데 몇백만원 밖에 차례가 안가요.

몇개만 합해서도 194명이 안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따져도 그럼 그면에 비해서 진부가 굉장히 작은거지요. 조금전에 농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별로 공정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가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政課長 辛永善 : 직관장 부채관계는 감정가가 43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법원에 경매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감정한 가격이 43억이고 건물소유자의 부채관계는 총 32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11억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경매가 들어가면 그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변호사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준 2억 5,000만원에 대한 만약에 운영이 안되던가 했을때는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협력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자 위주로 하면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하고 그다음 읍면별로 균형적으로 배분을 하면 그다음 신청자한테 돌아가는 불이익이 크다 그래서 결국은 합리성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객관적인 수치에서 배정을 하게 되는 것이 편한 것인데 다만 읍면 균형을 고려해서 배정기준을 보셨겠지만 임의 가중치를 20%를 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배정기준이 객관성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청자 위주로 하면 지역간에 너무 불균형이 생기고 그다음 읍면을 맞추다 보면 신청자한테 다소 불이익이 돌아간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만 20% 지역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0%의 임의 가중치를 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여기 계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장이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금액으로 환산했을때 읍면세로 봐서 나누어 줬다면 신청을 받지 않고 각 읍면으로 자금 배정을 해서 이 안에서 나누어 줬라 했으면 이런 말도 안생겼어요. 안그렇습니까?

그것이 훨씬 더 편했지요.

○ 農政課長 辛永善 :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맞지요. 그렇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신청을 받을때는 그나마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자율사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측정하기 곤란하고 일단은 신청을 받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릴다면 우강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겠지요. 지역균형을 개발해서 지역적인 배분을 한다면 당초부터 배분을 하지 왜 신청을 받아서 했느냐 그런 논리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결과론적

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禹康鎬 議員 : 실질적으로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은 농정과장님 부분이지만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이 문제를 가지고 농정과장께 얘기하신 의원이 이수현 의원하고 저, 다른 의원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홍보를 해가지고 그 많은 인원이 사실 혜택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턱도없이 몇백만원 대로 받게 되니까 사람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 어디에서 흘러 나갔던 간에 배분한 실적들이 대부분 군청을 자주 다니는 좀 사업도 농사사업을 크게 한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평가대상에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추후 이런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될 것이면 읍면세에 맞추어서 나누어 주고 그 안에서 알아서 읍면에서 배정을 하라 했으면 이런 저런 얘기도 없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철저하게 배분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農政課長 辛永善 : 알겠습니다.

○ 議長 李相薰 :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商工課長 劉元鍾 : 상공과장 유원종입니다.

김종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말연시 물가안정 대책과 관련 바가지요금, 외지상품판매, 원산지표시 단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물가여건은 원화 환율 급등이라던가 통화공급 확대, 12월 대통령선거 등이 맞물리면서 물가오름세 심리가 가중되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시켜 나가고자 97년 11월 13일부터 98년 2월 20일까지 100일동안 물가안정 집중관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 내용은 물가관리 책임과 역할

강화, 물가관련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 분야별, 품목별 현장위주 지도점검 강화 자율적 가격안정 및 건전소비문화 확산에 두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부군수님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 상황실을 운영하여 종합점검 체계확립 및 대책을 수립하고 읍면별 담당실과소장을 읍면별 지역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중점관리 대상업소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물가관리 지역별 책임을 부여하였고, 물가관리 지도단속반을 바가지요금, 원산지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개인서비스요금, 학원료 등 분야별 담당계장 및 실무자로 2개반 14명으로 구성하여 주 1회 합동지도단속을 하고 점검시 적발된 부당, 과다인상 업소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가격인하 유도를 하고 불응시는 위생검사, 세무조사 등을 의뢰시정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97년 12월초에는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 유관기관, 단체 정례회의 시 물가안정 협조사항을 당부하여 물가

관련 유관기관이 함께 지방물가안정에 동참하는 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자율적 가격안정 및 건전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내용으로 값싼 업소, 가격인하 모범업소를 지속 발굴 홍보하며 연말에 군수님의 물가안정 서한문 발송, 군정홍보판을 이용한 홍보 여성단체, 부녀회 등을 통한 소비자 물가감시 당부, 각종 교육, 행사, 회의시 겸소한 연말 보내기를 교육하여 주민 스스로가 물가안정을 위한 감시자가 되고 자율통제되는 소비문화가 조성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외지상인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관계법상 사전에 판매장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후 판매를 하여야 하나 현실로는 불법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과 관련해서는 연 2회 시.군 교체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읍면에서는 분기 1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 공산품 품질 미표

시 상품 7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김종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가 되면서 자체역량제고에 중점 추진한 사업중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점추진 방향은 기업지원 민원처리행태 및 민원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평창군을 알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육성, 유휴인력의 체계적 관리로 취업과 연계 생산자원화 하는데 우선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한 '97년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자치단체 발주사업 수의계약시 지역업체 우선도급을 의무화 하여 지역업체와 물품이 우선 이용되도록 하였고,

용평리조트 등 관내 관광업체에 우리 고장 물품구매 및 인력활용을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지역 고용증대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가 농공단지 등에 무진산업의 6개업체가 있었습니다.

지역제품 판매홍보를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우수제품 9개업체 17개 품목에 대하

여 인터넷 전자시장을 구축하였고, 내고장상품 홍보책자를 700부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6개업체 15억 7,9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고, '96년 무장공비피해업소에 대하여 88개업소에 15억원의 용자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관령 관광특구로 4개면 20개리가 지정되어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기대되고 있고 저소득층 유희인력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용촉진 기술훈련사업으로 정밀기계, 간호조무사, 정보처리 등의 부문에 18명 훈련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경제살리기에 대한 역할 부여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초빙 경제살리기 공직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정보화 자금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최대의 노력을 강구할 것이며 의식개혁을 통한 건전소비생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발굴로 국가적인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李相薰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安元守 : 건설과장 안원수입니다.

먼저 이경진 의원과 유돈문 의원, 이수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용어 그대로 국토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국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에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과 기반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계획과 개발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에 요청하며 건설교통부에서 지정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모체는 석탄산업 합리화 조직이후 황폐화 되어 가는 광산 지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지역 종합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폐광지역을 대상 개발촉진지구를 추진하였으나 이 법이 폐지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94년 1월 제정되면서 탄광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도 개발촉진 지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와관련 강원도에서는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추진되어온 탄광지역 즉 태백시, 삼척시, 도계읍, 정선군, 영월군 상동읍을 1차년도에 지정하였고 2차년도에는 1차년도 계획수립에 제척되었던 영월군 일부지역과 강원도에서 낙후도 가중치가 가장 낮은 화천군이 2차 계획을 수립하였고 3차년도 사업은 당시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건의하였던 우리군을 포

함 도농복합형태인 강릉시와 연계하여 정선군 일부와 인제군이 대상이며 98년도에는 양구군, 양양군, 99년도에는 춘천시와 횡성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정시기가 영월군과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 오해의 여론이 있을수 있는 사항이나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태동은 폐광지구 개발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이 포함된 강원도의 3차년도 97개발촉진지구지정은 현재 강원도에서 용역을 의뢰한 강원개발 연구원에서 지정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0월 31일자로 강원도에 납품되었으나 도에서는 아직까지 건설교통부에 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수립된 계획중 우리군 관련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정면적은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의 120km이며 개발계획은 우리군에서 요구한 모든사업이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특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도 나름대로 고심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

며 우리군의 개발계획은 총 15건으로
 레저사업이 5건, 지역특화사업이 6건,
 기반확충사업이 3건, 도시환경정비사업
 1건으로 관광레저사업은 평창읍 상리 일
 원에 상리 레포츠단지, 평창읍 종부리
 일원에 삼방산 스키리조트, 미탄면 평안
 회동 일원에 청옥산 민박단지, 대화면
 개수리 일원에 개수 벨리리조트, 대화면
 신리 일원에 대화 골프리조트이며
 지역특화사업은 평창읍 상리지구의 상리
 산체가공공장, 평창읍 여만지구에 여만
 산머루가공공장, 미탄면 창리지구에 미
 탄농특산물 종합판매장, 대화면 대화리
 에 대화농특산물 가공공장, 대화면 하안
 미리에 하안미 농산물 가공공장, 방림면
 방림리에 방림농산물 가공공장이며
 기반시설은 종부교가설공사, 미탄무공해
 채소반출도로, 대화-개수간 도로확·포
 장, 미탄상수도 이전사업이 계획되어 있
 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획안이 만족한 수준은
 아니나 나름대로 방만한 계획보다는 내
 실있는 계획을 도에서 수립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또한 의원 여러분과 지역주
 민 여러분께서 관련부서와 강원개발연구
 원을 방문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도에서 수정없이 건설
 교통부에 지정요구를 하게되면 개발계획
 에 대한 평가가 다시 있을 것으로 전망
 되며 이 과정에서 군 행정력이 부족할
 경우 다시금 의원님과 지역주민의 힘이
 다시금 필요할 때에는 지원을 요청하겠
 습니다.

아울러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이 확정 고
 시 시기는 예견하기는 어려우나 98년 3/
 4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본 계획이 확정되면 관광레저 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하여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사
 업시행자를 선정 할 수 있음으로 현재
 우리군에서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삼방산 개발은 추진이 유리한 개발여건
 으로 민자유치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 됩
 니다.

다음은 유돈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월
 댐 수몰지 관련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댐은 예상치 못한 대규모 홍수시 남한강 일원 홍수조절과 안정적 용수공급, 수력에너지 확보를 목적으로 신설되는 다목적댐으로 200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월댐으로 인한 우리군 수몰지역은 만수위를 기준으로 총 3.53km²로 마하리 1.68km², 한탄리 0.47km², 기화리 1.12km², 수청리 0.14km², 창리 0.071km², 백운리 0.049km²가 수몰되며 위치로는 평창에서 정선간 국도와 마하리 군도 분기점 국도 50여m가 만수위 지점입니다.

다음은 수몰지구내 골재채취와 자연석 채취에 대한 사항입니다.

군에서는 수몰되는 하천골재를 채취, 군세충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 1월 30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월 6일 한국골재 협회에 홍보 의뢰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현재까지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으나 11월 14일 대한상이군경회 사업대행 업체인 보훈기업 주식회사에서 자연석 및 골재채취 신청이 있어 내년도 골재채취 예정지 고시를 위해 현재 현황

측량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채취 가능량은 82,000m³로 15t 중기트럭 기준 10,400여대의 분량이며 자연석은 약 3,000여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관련 부분입니다.

군에서 제도상, 법률상 수몰지 주민에게 불리한 사항이 개선되어 각종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 긴밀한 의견 교환으로 중앙에 건의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수몰이 된 후 미수몰지역 주민이 불편없이 생활 할 수 있도록 각종 도로건설과 공공시설물 건축 등을 수자원 개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며 유돈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나무등우리 6가구 이주 문제를 포함하여 추가 이주 희망농가에 대하여는 수자원개발공사와 협의를 해나가겠으나 가능여부가 불투명 함으로 신중히 협의하겠으며 수몰지 주민에 대하여는 보상이 추진되는 단계에서 이주 의향을 파악하여 집단이주지 건설계획 등을 추진하여 최대한 편의

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물대책위원회에서 군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으나 보상업무 모두를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관련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댐관련 업무는 저희과 건설행정계에서 담당하여도 주민의 의사전달이나 관련기관 협조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수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도 4호선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4호선은 94년 지정된 노선으로 중기 계획상 2000년도부터 계획되어 있음은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군도는 연도별 중기계획에 의거 양여금 70%와 군비 30%를 매년 투자하고 있으나 양여금 지원이 계획된 만큼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본 노선의 추진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하여 현재 강원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의 계획대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본 사업이 확정되면 착수시기와 준공시기가 중기계획의 계획년도보다 다소 앞당겨 질 것으로 전망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李相燾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慶鎭 議員 : 이경진 의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 면적이 10%를 지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50㎢정도를 지정받을 수 있는데 120㎢로 도지사에게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그런 과정에서 30㎢정도가 지금 삭제가 되어 있는것 같은데 원인이 이해가 안가는것 같고 그리고 지정이 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했을때 중복성, 실현가능성, 경제성 등이 없다고 판단되면 요구한 지정면적

에서 10km²이고 20km²이고 삭제됩니다.

개발촉진지구가 상상외로 상당한 개발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10%고 20%고 면적이 삭감된다면 상당한 우리군으로서는 손실이 올 수 밖에 없는데 사전 대비대책이 완벽하지 못한 것 같고, 그다음 영월같은 경우에는 탄광촌 개발촉진지역이 지정이 되면서 1년 전에 개발 전담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상공과에 개발전담팀이 있는데 우리도 이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담팀 구성이 필요한데 앞으로 10% 20%이고 삭감되었을 경우에 몇년후에 보충해서 지정요구하면 확보할 수 있는지, 삭감되지 않게끔 레저시설이 5건이나 요구를 하셨는데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혹시 예견되어 있지 않는지 이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安元守 : 당초 탄광지역 활성화 대책으로서 우리 강원도 면적이 16,897km²입니다. 여기의 10%인 1,689 km²를 확정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평창군

이 기초면적에 140km²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하기를 150km²를 올렸는데 그다음 다시 도에서 조정을 하면서 120km²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의 10%라는 개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단지를 묶을 때 연계성으로 묶다 보니까 그런 면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띠식으로 묶다 보니까 km²에 대해서는 조금의 차가, 큰 의미가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의 문제입니다.

알찬 사업을 실현 가능한 사업을 책정하느냐가 제일 관건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올렸습니다. 면에서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올렸더니 거기 중복된 것을 다 배제를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 저희들도 방림에도 스키장을 올렸고 여기도 올렸고 그랬는데 1개군에서 스키장을 2개를 올릴 수 없다 해서 하나는 조정을 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되는 것은 많이 배제가 되었

습니다. 또 전담팀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사업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사업이 몇개 안됩니다.

4개지구에 250억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차로 나누어서 하면
각 해당과에서도 충분히 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고 그다음 지역특화사업 같은
것은 이것도 해당과에서 저희 생각에는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용자가 있고 그다음 자
부담이 있고 농수산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 레저
부분에 가서는 완전 민자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과에서 인허가 관계, 그다
음 그런 것만 추진 해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담당부서가 현재까지 필요 없
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李慶鎭 議員 :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총면적의 10% 범위내에서
지정할 수 있게끔 아주 강력하게 통제하
는 사항입니다. 통제를 한다고 하면
그 반대급부로 상당한 기반시설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도 우리가 150km²를 요청했다
가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해서 도지사
에게 제출하는 과정에서 30km²가 삭제되었
다는 부분에 대해서 석연찮은 부분도 있
고 사실상 사업계획서 미비로 다음에 12
0km² 올린 중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할때에 단 10%이고 20%가 각인다면 대단
한 손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의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서는 과장님이 뭔가를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면적이 확보될 수 있게끔 노
력 하셔야 됩니다.

○ 建設課長 安元守 : 현재 확정이 되었
습니다. 120km²로 확정이 되었고 추가
로 저희들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 李慶鎭 議員 : 그것은 도지사에게 제
출한, 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올
려야할 면적이 120km²를 가지고 있는 겁
니다. 그것이 건설교통부로 올라 갔을
때 중복성, 실현가능성, 경제성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또 삭제가 됩니다.

상당한 예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추가로 어떤 조치를 하실것인지 삭제하면 삭제되는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실런지 준비상태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安元守 : 네.

○ 劉燾文 議員 : 유돈문 의원입니다.

방금전에 아경진 의원께서 강력히 촉구했습니다만, 처음에 150km를 올렸는데 30km가 각인데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집행부에서 상당히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개발촉진지구는 폐광지역을 위주로 해서 미탄면이 광산 폐광지역 특별법에 빠져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95년도에 군정 질문을 두번이나 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가 폐광지역에 빠졌기 때문에 미탄면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97년도에 분명히 폐광지역인 미탄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림면에 가신 이영범 건설

행정계장님이 계실때 미탄면에다가 140억이 투자되는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탄면에서는 육백마지기 순환도로 17km를 리고 지금 가공공장 산초나무에 대해서 140억이 투자되는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와서는 폐광지를 주지 않고 낙후된 지역 4개면을 공동개발지역으로 함과 동시에 지금현재 미탄면에는 순환도로 17km가 제1순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에 올라간 것을 보면 제일 마지막 순위로 뒤로 쳐졌습니다.

이것은 평창군 집행부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安元守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145억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계획단계이고 현재 순위에는 저희들이 미탄면 회동리에 순환도로 12km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라는 것이 없습니다.

○ 劉燾文 議員 : 아니 17km도 다 안되

어 있지 않습니까? 순환도로라면 17km가 다 되어야지 하다가 이빨이 빠지면 자동차가 야채 실으러 올라가다 보면 비포장이라서 못가잖아요?

○ 建設課長 安元守 : 그때는 설계를 해 봐야지요. 하나의 계획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12km를 넣었으니까 12km의 계획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넣은 것인데,

○ 劉燾文 議員 : 그 17km는 자동차로 메타기로 재면서 올라가니 딱 17km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고 완전히 자동차로 킬로미터를 타고 올라갔을 때 17km가 나왔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12km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 하시는데, 7km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 建設課長 安元守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劉燾文 議員 : 7km라면 반이지 않습니까? 지금 12km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답변이 맞습니까?

○ 建設課長 安元守 :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먼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가지고 온 자료에 보면 12km로 되어 있고 약 공사비가 100억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 劉燾文 議員 : 과장님 이것 때문에 미탄 번영회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 가서 미탄 청옥산 육백마지기 무공해 채소 순환도로가 17km인데 왜 7km로 되었냐고 가서 보니까 7km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12km라고 하면 어떤 쪽이 맞습니까?

강원개발연구원에서는 7km라고 그랬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편도밖에 안된다고 얘기 했는데 편도는 육백마지기 가다가 말아요. 그러면 야채 수송을 못하는데 좋은땅 무공해채소 운반도로로 해서,

○ 建設課長 安元守 : 저희들이 지금 12km다 17km다 7km다가 문제가 아니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야채공장에서 평안리까지 도로가 20km되었던 10km가 되었던 책정이 되면 그것은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촉진지구라는 의미가 없어 집니다.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어느 시가지와 단지 사이에 가는 도로 개설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화~개수간 도로도 하지만 그쪽이 리조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단지와 소재지와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도로이고 산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부리도 삼방산 개발이 스키장이 있기 때문에 중부교를 놓는 것이고 그래서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10km이고 20km라 하는 것은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 봐야 나오지 도상상에 저희들이 재다 보니까 16km가 되고 17km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큰,

○ 劉燾文 議員 : 그렇다면 앞으로 과장님께서서는 미탄 무공해채소 운반도로, 책임을 지시고 육백마지기 까지 갈 수 있게끔 틀림없이 완전히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하다가 중단하면 어떻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에서는 17km를 다 포장을 하자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미탄서 갈

때 답변을 하셔서 지금 미탄에서는 상당히 무공해채소 운반도로가 100% 돼야 된다 하는것을 한사코 고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서는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安元守 : 알았습니다.

○ 劉燾文 議員 :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월댐 수몰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공청회를 미탄 수몰지 기화리에서 한번 하고 한번은 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의 그때당시 6개리라고 안그랬어요. 분명히 4개리라고 그랬는데 지정고시 할때에 6개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수자원개발공사를 반대하는 것이 뭔가 하면 주민을 속여서 국가사업을 할 수 있느냐, 창리하고 백운리라면 지금 과장님 만수위때 정선가는 국도가 위협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길이 올라간다는 얘가지요. 맞지요?

○ 建設課長 安元守 : 네. 약 800m 이

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창리 40번지 전 하고 45번지 답이 어느위치에 있는지 아십니까? 미탄의 위치에 있는지 아시냐고요.

○ 建設課長 安元守 : 지적도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劉燾文 議員 :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지적도를 봐야 할 정도로 하니까 미탄면민이 집행부를 상당히 비난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만수위때 40번지 하고 45번지가 위험수위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까?

○ 建設課長 安元守 : 네.

○ 劉燾文 議員 : 그것을 아서가지고 미탄면 어느 위치라는 것을 알아야지 주민이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면을 보면 아까 질문을 드렸잖아요? 나무동우리 옛날 건너가는 다리, 창리2리 삼막골 식당에서 건너보이는 고립된 동네입니다. 거기가 다 수몰이 돼야 하는데 그 끝에 집에 가서 집만 철거하라고 하고 그것은

그냥 뒀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국가사업인데 거기 나머지 집만 위험을 도사리고 살아야 됩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월군 같으면 벌써 지원단을 구성해서 그런 것을 수자원개발공사와 타진해서 다 넣었어요. 평창군만 그냥 있다가, 영월군과 평창군이 행정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과장님 빨리 번지 위험수위가 창리 40번지 하고 45번지 그 지역이 만수위때 수몰지다 이렇게 통보해 줄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여기 주민들 어느지역이다 알고 주민들한테 대책을 강구해줘야지 주민들이 수자원개발공사에 직접 가야 됩니까? 그런것을 잘 참고하셔서 주민들 애로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백룡동굴 가다보면 황새여울이라는 곳을 과장님 한번도 안가보셨지요?

○ 建設課長 安元守 : 못가봤습니다.

○ 劉燉文 議員 : 엇그제 경찰서장님이 보러 갔습니다.

백룡동굴이 수몰된다고 하니 내가 경찰서장으로 와서 그냥 갈 수 있느냐 해서 한번 가봐야겠다고 왔다 갔어요.

그런데 집행부 건설과장님은 한번도 황새여울 근처에 모래 자갈이 엄청 많습시다. 아까 가보지도 않고 몇 트럭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영월에는 이번 수해전에 다 가지고 갔어요. 이번에 물이 덜컥 나가니 또 물렸어요.

그러면 물이 덮어 놓았으니 콩짜로 얻은 것이 아닙니까? 평창군에서 파가지고 갔으면 이번물에 또 쌓여 있잖아요.

그럼 또 버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반복 되는 것을 여태까지 가만이 두고 공개입찰을 하니까 없다고 그래요?

레미콘 업자들이 자갈과 모래 때문에 서로 난리들인데 영월에서는 미탄에도 도로사용료를 얼마나 주고 가지고 갔는지 아세요? 1,100만원을 주고 가지고 갔어요. 지금은 물이 줄으니까 1,100

만원을 또 줘야 하잖아요.

동네에서 몇톤 가지고 가면 사용료는 끝이다 했기 때문에 또 돈을 주고 가지고 갈려니 안되니 개울에 물이 줄었어 어떤 차도 갑니다. 어제 경찰서장이 갔을때 짐차가 그냥 백룡동굴앞까지 직행으로 갔어요.

그렇게 물이 줄고 없다니가, 요즘도 계속 가요. 삼강레미콘에서 역수로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왜 평창에서는 좋은 황새여울의 모래와 자갈이 엄청 많아요.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무책임하게 가만이 앉아서 대책도 안하고 있으면 군 재산을 어떻게 책임부서에서 무관심 합니까?

엄청 많습니다. 하천골재를 어디에서, 건설과에서 줘야지요?

건설과에서 합니까?

○ 建設課長 安元守 : 네. 건설과에서 합니다.

○ 劉燉文 議員 : 왜 안합니까?

○ 建設課長 安元守 : 글썽 재원이 있으면 벌써 골재업자들이, 하여튼 98년도

계획에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모래가 많다 하면,

○ 劉燉文 議員 : 지금 97년도 한번 했으면 그만큼 군 수입이 있었었는데 안했기 때문에 군수입이 없었다고 생각하시고 즉시 98년도 금년에 지금 물이 바짝 다 줄었어요. 그럼 더 많이 물이 늘었을때 보다 채취를 더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현지 답사를 하셔서 군 재산에 낭비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安元守 : 알았습니다.

○ 劉燉文 議員 : 이상입니다.

○ 議長 李相薰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李敬洙 : 도시과장 이경수입니다.

이경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창읍소도읍가꾸기 준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평창읍 하

리 구경찰서 뒤에서 평창초등학교 사이 소로 3-10호선과 평창읍 천변리 춘천담갈비에서 강변도로 구간 등 2개소에 연장 380m, 폭 6-8m 도로로서 사업비는 교부세 5억원, 군비 15억원으로 총 2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며 97년 7월 31일자로 강원도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97년 10월에는 강원도에서 내무부에 신청을 하여 현재 내무부에서 심사중에 있으며 98년 2월에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확정 시달되는대로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李相薰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예정된 내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
으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제5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22分 散會)

○ 出席議員

議 長 李 相 薰
 副議長 金 鍾 永
 議 員 劉 燉 文
 議 員 李 洙 現
 議 員 金 斗 經
 議 員 金 樂 雲
 議 員 禹 康 鎬

○ 出席公務員

副 郡 守 朴 容 康
 保健醫療院長 金 鎮 佰
 農村指導所長 李 燦 錫
 企劃監查室長 姜 慶 錫
 民願奉仕室長 李 永 德
 內 務 課 長 金 學 根

財 務 課 長 趙 圭 植
 地域開發課長 申 大 松
 地 籍 課 長 南 大 鉉
 福 祉 課 長 朴 靜 子
 環境保護課長 權 赫 昇
 農 政 課 長 辛 永 善
 商 工 課 長 劉 元 鍾
 山 林 課 長 李 榮 植
 建 設 課 長 安 元 守
 都 市 課 長 李 敬 洙
 民防衛災難管理課長 宋在明
 保健事業課長 孫 東 欽
 社會指導課長 李 宇 炯
 技術普及課長 白 順 圭

○ 議會事務課

事 務 課 長 李 京 植
 專 門 委 員 辛 教 善
 議 事 係 長 全 完 鐸
 地方行政主事補 李 錠 均
 地方行政主事補 鄭 成 文

【 議 席 表 】

○ 議席表 (17 面에 실음)

【 보 고 사 항 】

○ 문서발송

○ 평창군이송

- 평창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

('97. 11. 25)

- 평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

례안('97. 11. 26)

○ 문서접수

- '97. 11. 26일 군정질문시군수출석

불가통지('97. 11. 25)